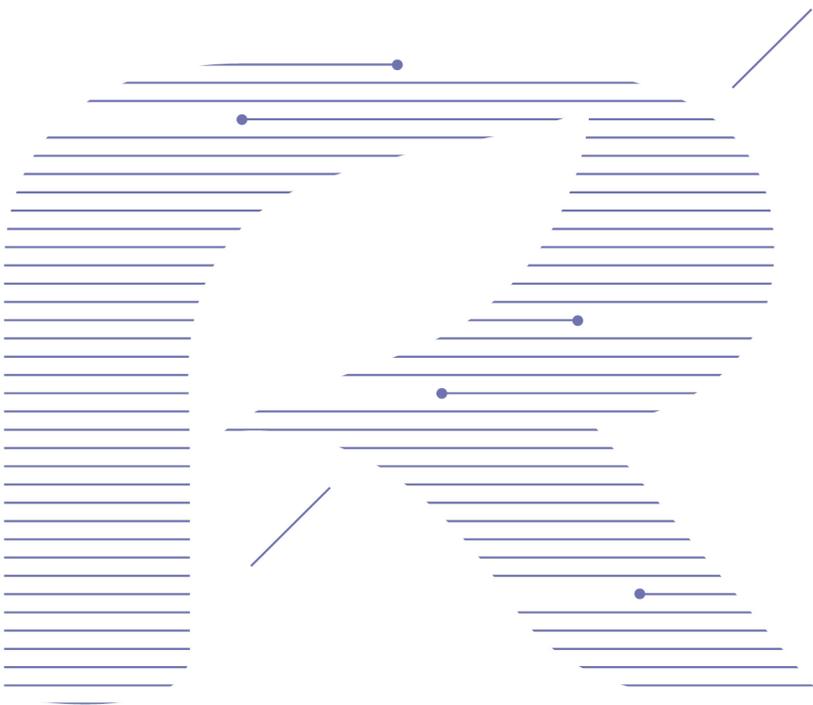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부속 연구서

- 농업인 경영위험관리 실태 조사

김태후 · 국승용 · 이수환 · 최현동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부속 연구서

- 농업인 경영위험관리 실태 조사

김태후 · 국승용 · 이수환 · 최현동



연구 담당

김태후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국승용 | 선임연구위원 | 설문조사 결과 집필

이수환 | 부연구위원 |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현동 | 연구원 | 설문조사 결과 분석

R2025-18 연구자료-1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부속 연구서

- 농업인 경영위험관리 실태 조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5.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P&B (주)

I S B N | 979-11-6149-821-8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2. 벼농가 조사 결과	5
3. 과수 및 채소 농가 조사 결과	22
4. 축산 농가 조사 결과	38
5. 시사점	53
부록	57

제1장

〈표 1-1〉 논/벼 농가 응답자 특성 2

〈표 1-2〉 과수 및 채소 농가 응답자 특성 3

〈표 1-3〉 축산 농가 응답자 특성 4

〈표 1-4〉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의향 18

〈표 1-5〉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거부 이유 19

〈표 1-6〉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20

〈표 1-7〉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21

〈표 1-8〉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의향 34

〈표 1-9〉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거부 이유 35

〈표 1-10〉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36

〈표 1-11〉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37

〈표 1-12〉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51

〈표 1-13〉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52

〈표 1-14〉 농가 수입 감소 주요인 및 세부 요인(요약) 53

〈표 1-15〉 경영 위험 대처방식과 정책 선호도(요약) 55

제1장

<그림 1-1> 영농경력 5

<그림 1-2> 최근 5년간 재배면적 6

<그림 1-3> 조수입 6

<그림 1-4> 농업 소득 감소 횟수 및 비율 7

<그림 1-5> 농업 소득 감소의 주된 이유 8

<그림 1-6> 쌀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와 비율 8

<그림 1-7>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9

<그림 1-8>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 10

<그림 1-9>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11

<그림 1-10>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12

<그림 1-11>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 및
정부 정책 수요 13

<그림 1-12>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14

<그림 1-13>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영농 활동 15

<그림 1-14>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15

<그림 1-15> 농업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16

<그림 1-16> 최근 5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횟수 17

<그림 1-17>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17

<그림 1-18>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20

<그림 1-19> 영농경력 22

<그림 1-20> 조수입 23

<그림 1-21> 농업 소득 감소 횟수 및 비율 24

<그림 1-22> 농업 소득 감소의 주된 이유 24

〈그림 1-23〉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와 비율	25
〈그림 1-24〉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26
〈그림 1-25〉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	26
〈그림 1-26〉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27
〈그림 1-27〉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28
〈그림 1-28〉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 및 정부 정책 수요	29
〈그림 1-29〉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30
〈그림 1-30〉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영농 활동	31
〈그림 1-31〉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31
〈그림 1-32〉 농업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32
〈그림 1-33〉 최근 5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횟수	33
〈그림 1-34〉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33
〈그림 1-35〉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36
〈그림 1-36〉 축산경력	38
〈그림 1-37〉 최근 5년간 주요 사육 축종	39
〈그림 1-38〉 조수입	39
〈그림 1-39〉 축산물 소득 감소 횟수 및 비율	40
〈그림 1-40〉 축산물 소득 감소의 주된 이유	41
〈그림 1-41〉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와 비율	41
〈그림 1-42〉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42
〈그림 1-43〉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축산 활동	43
〈그림 1-44〉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43
〈그림 1-45〉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44

〈그림 1-46〉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축산 활동 및 정부 정책	45
〈그림 1-47〉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46
〈그림 1-48〉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축산 활동	47
〈그림 1-49〉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48
〈그림 1-50〉 축산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49
〈그림 1-51〉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50

1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및 설계

최근 기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확산,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 증대, 농축산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어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위험, 생산비 상승 위험, 판매 가격 하락 위험 등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대응 방식을 분석하여 농업 경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효과적인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경영 위험에 대한 현장의 인식,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목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위험 실태와 기존의 위험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하였다.

KREI 현지 통신원을 논/벼, 과수 및 채소, 축산 농가로 임의 추출하여 2025년 8월 19일부터 동년 9월 9일까지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응답자 수는 논/벼 농가 230명, 과수 및 채소 농가 221명, 축산 농가 111명이다.

1.2. 설문 응답자 특성 분석

논/벼 농가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농업 관련 특성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논/벼 농가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구성 비율
거주 지역	경기	37	16.1
	충남	32	13.9
	충북	11	4.8
	전북	40	17.4
	전남	42	18.3
	경북	25	10.9
	경남	25	10.9
	강원	15	6.5
영농 경력	20년 미만	48	20.9
	20년 이상	182	79.1
2024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75	32.6
	2천만~5천만 원 미만	78	33.9
	5천만 원 이상	77	33.5
성별	남성	219	95.2
	여성	11	4.8
연령대	60세 미만	53	23.1
	60대	84	36.5
	70대 이상	93	40.4

주: n=23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논/벼 농가 응답자의 거주 지역 분포는 ‘전남’이 42명(18.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이 40명(17.4%), ‘경기’가 37명(16.1%), ‘충남’이 32명(13.9%), ‘경북’과 ‘경남’이 각각 25명(10.9%), ‘강원’이 15명(6.5%), ‘충북’이 11명(4.8%)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182명(79.1%)으로 ‘20년 미만

(48명, 20.9%)'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95.2%이며,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93명(40.4%), '60대'가 84명(36.5%), '60대 미만'이 53명(23.1%)이다.

과수 및 채소 농가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농업 관련 특성에 대한 통계량을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과수 및 채소 농가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구분	응답자 수	구성 비율
세부 영농형태	과수	140	63.3
	채소	81	36.7
거주 지역	경기	16	7.2
	충남	17	7.7
	충북	21	9.5
	전북	19	8.6
	전남	24	10.9
	경북	50	22.6
	경남	39	17.6
	강원	28	12.7
영농 경력	20년 미만	135	61.1
	20년 이상	86	38.9
2024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44	19.9
	2천만~3천만 원 미만	33	14.9
	3천만~4천만 원 미만	33	14.9
	4천만~5천만 원 미만	26	11.8
	5천만~7천만 원 미만	30	13.6
	7천만~1억 원 미만	23	10.4
	1억 원 이상	32	14.5
성별	남성	188	85.1
	여성	33	14.9
연령대	60세 미만	75	34
	60대	86	38.9
	70대 이상	60	27.1

주: n=22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과수 및 채소 응답자의 생산 작목은 '채소'가 81명(36.7%), '과수'가 140명(63.3%)으로 채소보다 과수 비율이 높다. 거주 지역은 '경북'이 50명(22.6%), '경남'이 39명(17.6%), '강원'이 28명(12.7%)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은 '20년 미만'이 135명(61.1%)으로 '20년 이상' 86명(38.9%)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85.1%이며, 연령대는 '60대'가 86명(38.9%), '60세 미만'이 75명(34%)의 순으로 높다.

〈표 1-3〉 축산 농가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구분	응답자 수	구성 비율
사육 축종	한육우	55	49.5
	돼지	11	9.9
	기타	45	40.6
거주 지역	경기	15	13.5
	충남	13	11.7
	충북	7	6.3
	전북	12	10.8
	전남	17	15.3
	경북	18	16.2
	경남	12	10.8
	강원	16	14.4
영농 경력	20년 미만	43	38.7
	20년 이상	68	61.3
2024년 조수입	5천만 원 미만	32	28.8
	5천만~1억 원 미만	21	18.9
	1억~2억 원 미만	19	17.1
	2억 원 이상	39	35.2
성별	남성	94	84.7
	여성	17	15.3
연령대	60세 미만	42	37.9
	60대	45	40.5
	70대 이상	24	21.6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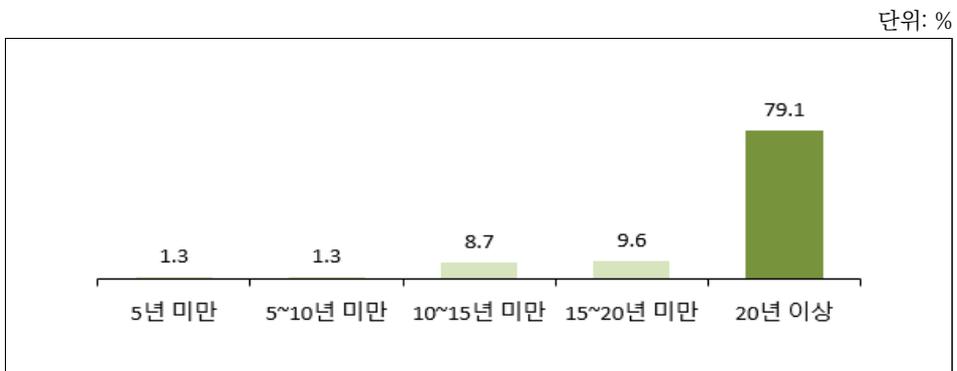
축산 응답자의 축종 유형은 ‘한육우’가 55명(49.5%), ‘돼지’가 11명(9.9%), ‘기타’가 45명(40.6%) 순이다. 응답자 거주 지역은 대체로 균일하며,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68명(61.3%)으로 ‘20년 미만(43명, 38.7%)’보다 높다.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84.7%이며, 연령대는 ‘60대’가 45명(40.5%), ‘60대 미만’이 42명(37.9%), ‘70대 이상’이 24명(21.6%)의 순으로 높다<표 1-3>.

2. 벼농가 조사 결과

2.1. 영농 관련 기본 사항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7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5~20년 미만’이 9.6%, ‘10~15년 미만’이 8.7%, ‘5~10년 미만’, ‘5년 미만’이 각각 1.3% 순으로 높다<그림 1-1>.

<그림 1-1> 영농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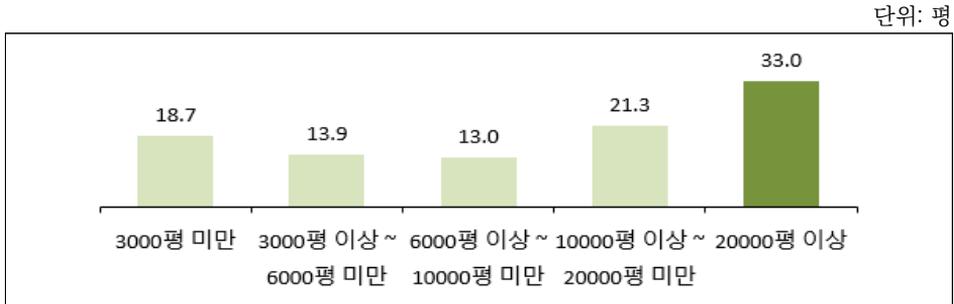


주: n=23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재배면적은 ‘2만 평 이상’이 33.0%로 가장 높고, 다음은 ‘1만 평 이상~2만 평 미만’ 21.3%, ‘3천 평 미만’ 18.7%, ‘3천 평 이상~6천 평 미만’ 13.9%, ‘6천 평 이상~1만 평 미만’ 13.0% 순으로 높다<그림 1-2>.

<그림 1-2> 최근 5년간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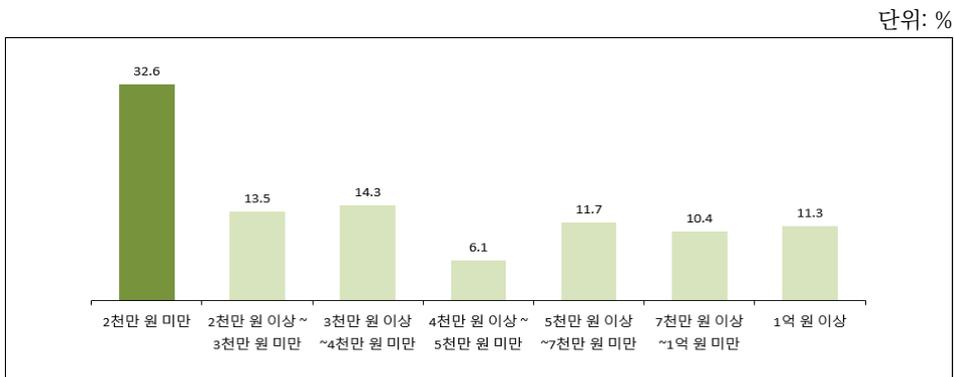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응답자의 농업 조수입은 ‘2천만 원 미만’이 3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3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14.3%,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이 13.5% 등의 순이다<그림 1-3>.

<그림 1-3> 조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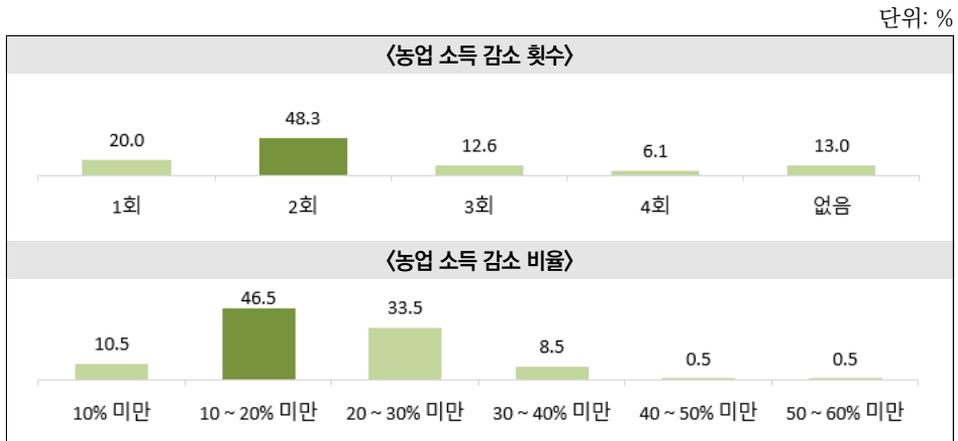
주: n=23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2.2. 농가 경영 관련 위험 요인

최근 5년간 농업 소득이 평년(최근 5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험 및 횟수를 조사한 결과, 농업 소득이 감소한 횟수는 '2회'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회' 20.0%, '3회' 12.6% 등의 순으로 높다. 감소 비율의 경우 '10~20%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0~30% 미만'이 33.5%, '10% 미만'이 10.5%, '30~40% 미만'이 8.5%, '40~50% 미만', '50~60% 미만'이 각각 0.5%이다(그림 1-4).

〈그림 1-4〉 농업 소득 감소 횟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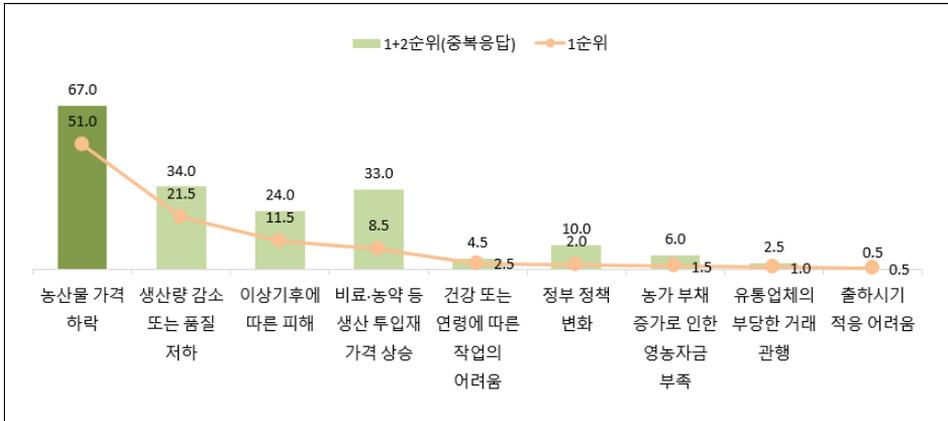


주: '농업 소득 감소 횟수'는 n=230, '농업 소득 감소 비율'은 n=200(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업 소득이 감소하는 주된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1+2순위 기준 '농산물 가격 하락'이 6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산력 감소 또는 품질 저하' 34.0%, '비료·농약 등 생산 투입재 가격 상승' 33.0% 등의 순으로 높다. 1순위 기준은 '농산물 가격 하락'이 5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산력 감소 또는 품질 저하' 21.5%,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11.5%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5).

〈그림 1-5〉 농업 소득 감소의 주된 이유

단위: %



주 1) n=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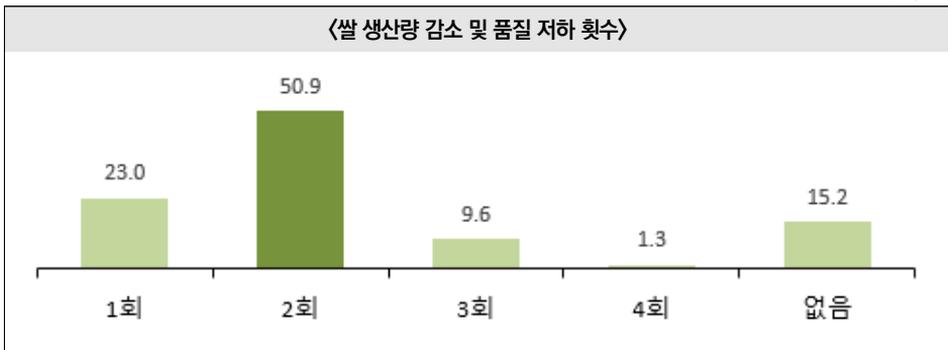
2) 1+2순위의 경우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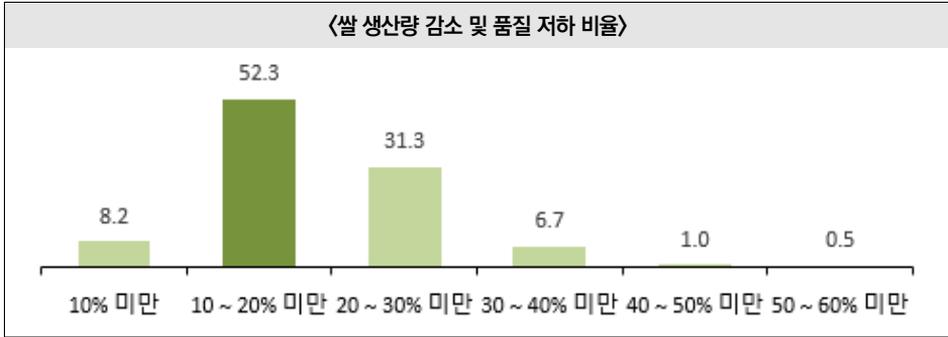
최근 5년 동안 생산된 쌀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와 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쌀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는 '2회'가 5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회' 23.0%, '3회' 9.6% 등의 순으로 높다. 쌀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의 경우 '10~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30% 미만' 31.3%, '10% 미만' 8.2%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6).

〈그림 1-6〉 쌀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와 비율

단위: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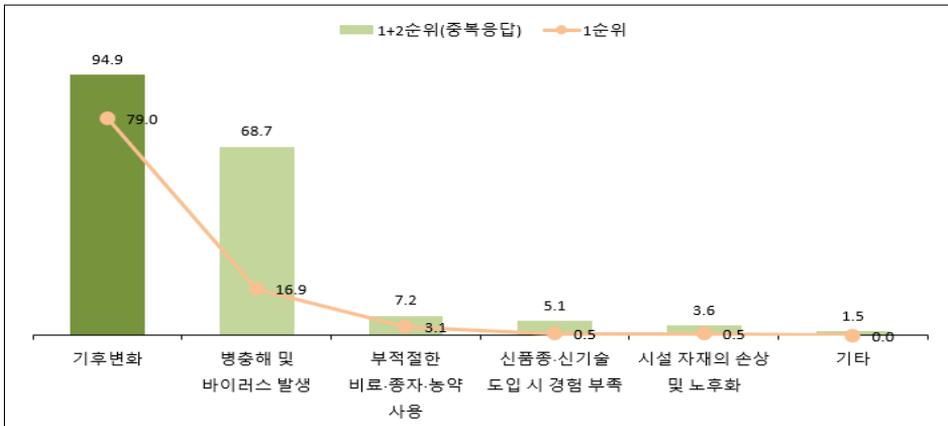
주: '쌀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은 n=230, '쌀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는 n=195(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에 대한 응답은 1+2순위 기준으로 '기후 변화'가 9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 및 바이러스 발생' 68.7%, '부적절한 비료·종자·농약 사용' 7.2% 등의 순으로 높다. 1순위 기준으로는 '기후 변화'가 7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 및 바이러스 발생' 16.9%, '부적절한 비료·종자·농약 사용' 3.1%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7>.

<그림 1-7>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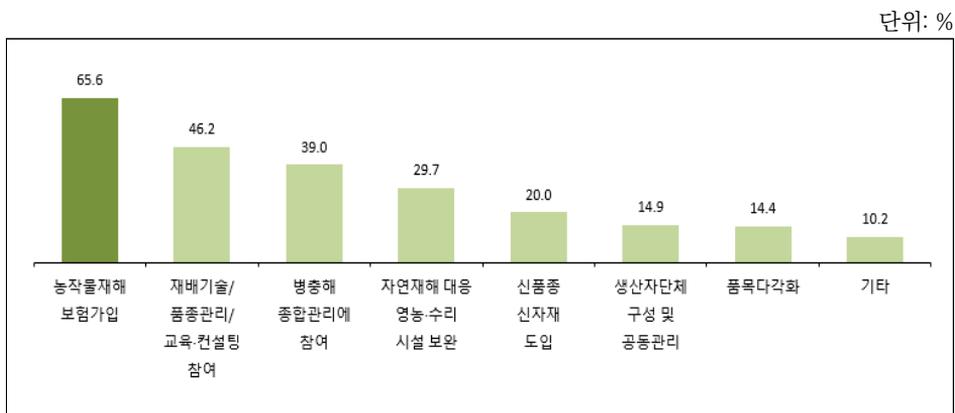


주: n=195.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을 묻는 설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한 응답 비율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6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재배기술/품종관리/교육·컨설팅 참여’ 46.2%, ‘병충해 종합관리에 참여’ 39.0%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8>.

<그림 1-8>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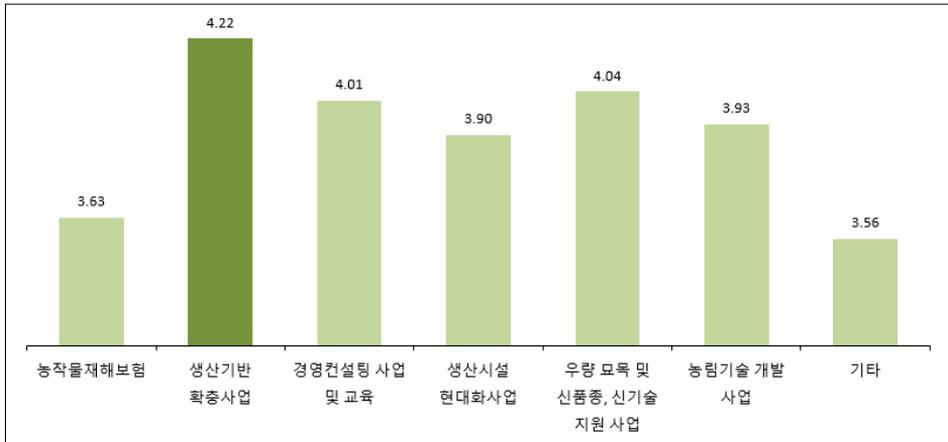
주: n=195.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의 만족도를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생산기반 확충사업’ 4.22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다. 다음으로 ‘우량 묘목 및 신품종, 신기술 지원사업’ 4.04점, ‘경영컨설팅 사업 및 교육’ 4.01점, ‘농림기술 개발 사업’ 3.93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90점, ‘농작물재해보험’ 3.63점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9>.

〈그림 1-9〉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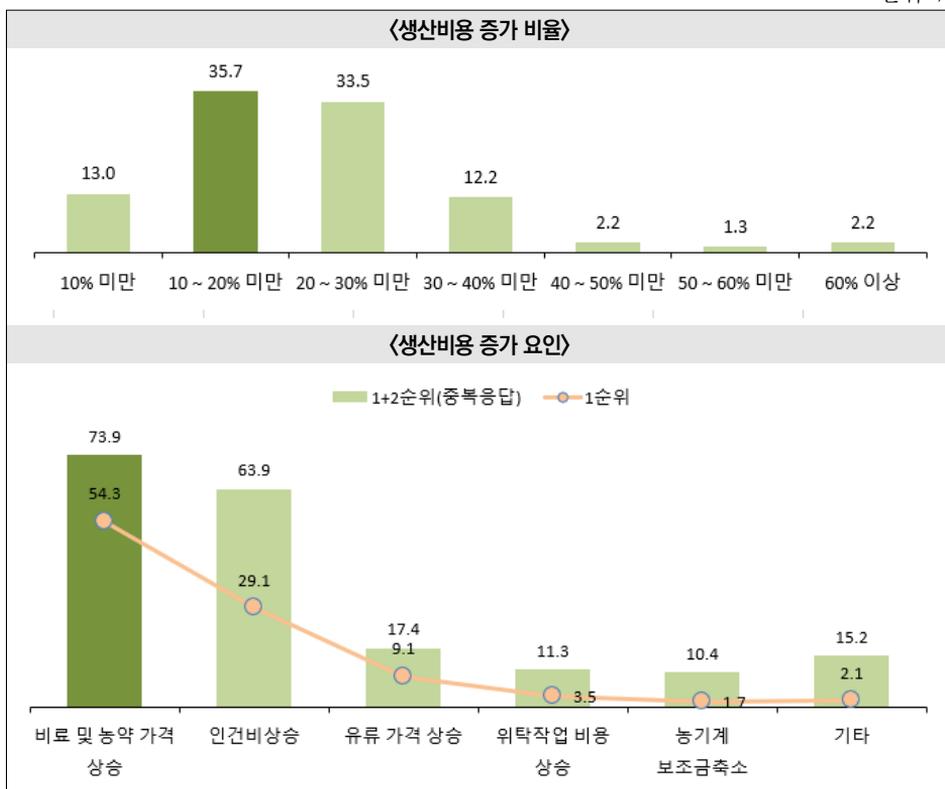
주: n=23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생산요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쌀 생산비용 증가 비율에 대한 응답은 '10~20% 미만'이 3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0~30% 미만'이 33.5%, '10% 미만'이 13.0% 등의 순으로 높다. 생산비용 증가 요인을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이 7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63.9%, '유류 가격 상승'이 17.4%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10).

〈그림 1-10〉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단위: %



주 1) n=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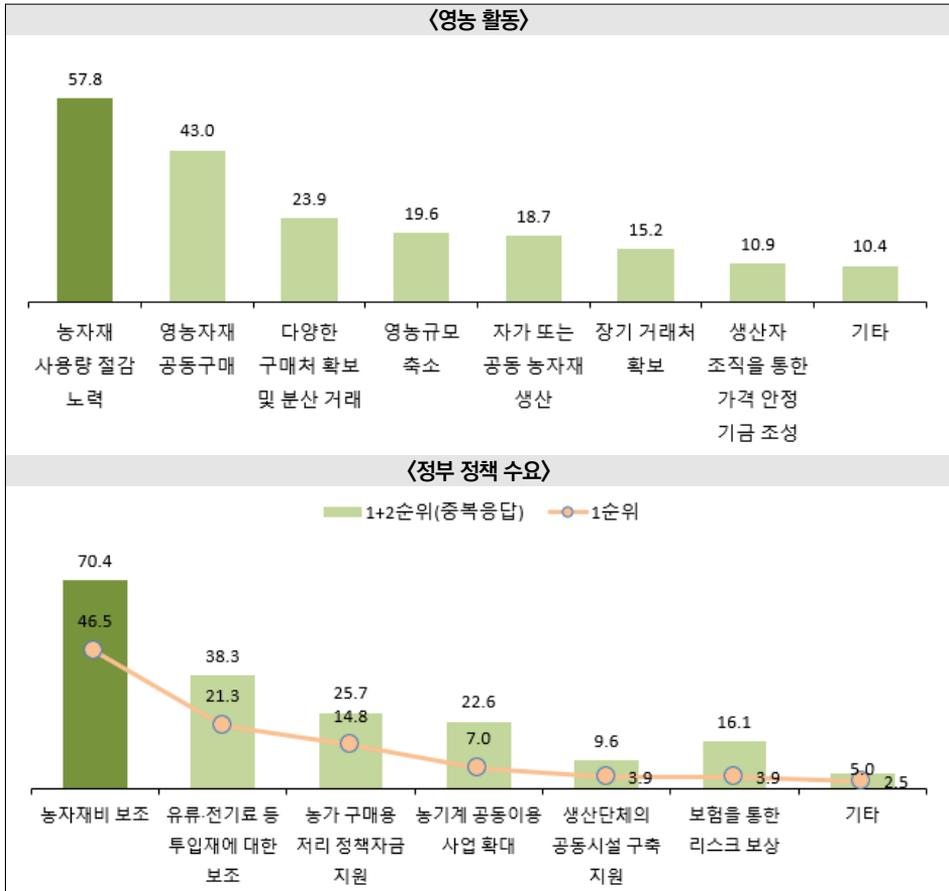
2) 1+2순위의 경우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쌀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응답자가 수행한 영농 활동의 종류와 필요한 정부 정책 수요에 대해 설문하였다.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에 대한 응답을 보면, ‘농자재 사용량 절감 노력’이 5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영농자재 공동구매’ 43.0%, ‘다양한 구매처 확보 및 분산 거래’ 23.9% 등의 순으로 높다.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수요에 대한 응답을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농자재비 보조’ 7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유류·전기료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가 38.3%, ‘농가 구매용 저리 정책자금 지원’이 25.7%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11).

〈그림 1-11〉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 및 정부 정책 수요

단위: %



주 1) n=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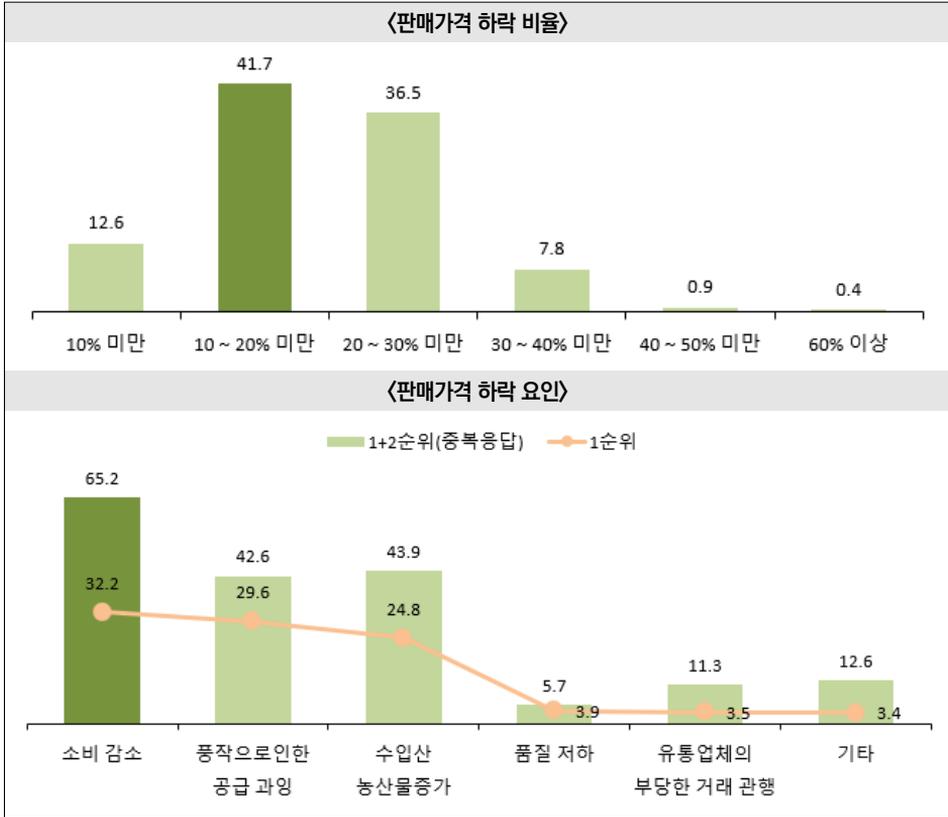
2) 1+2순위의 경우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 벼(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대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하락한 비율과 관련 위험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10~20% 미만'이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0~30% 미만'이 36.5%, '10% 미만'이 12.6% 등의 순으로 높다. 판매가격 하락 요인을 1+2순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비 감소'가 65.2%, '수입산 농산물 증가'가 43.9%,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이 42.6%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12).

〈그림 1-12〉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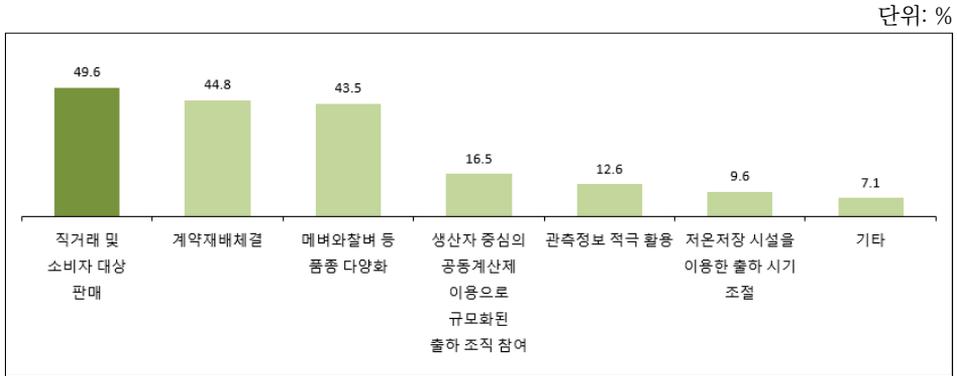
주 1) n=230.

2) 1+2순위의 경우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을 보았을 때, ‘직거래 및 소비자 대상 판매’가 4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계약재배 체결’ 44.8%, ‘메벼와 찰벼 등 품종 다양화’ 43.5%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13).

〈그림 1-13〉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영농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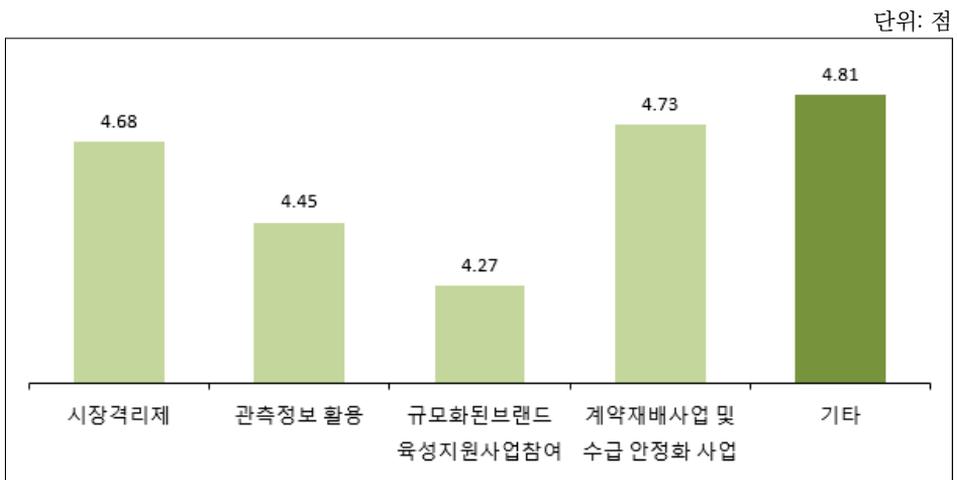


주: n=23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기타’가 4.8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계약재배사업 및 수급 안정화 사업’ 4.73점, ‘시장격리제’ 4.68점, ‘관측정보 활용’ 4.45점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14).

〈그림 1-14〉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주: n=23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업 경영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이들 중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의 영향력 대소를 비교하는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주관적 위험 요인에 대한 잠재적 손실 크기를 비교하였다<그림 1-15>.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 중에서는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가 40.0%로 더 높다.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중에서는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가 58.7%로 더 높다.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중에서는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가 41.3%로 더 높다.

<그림 1-15> 농업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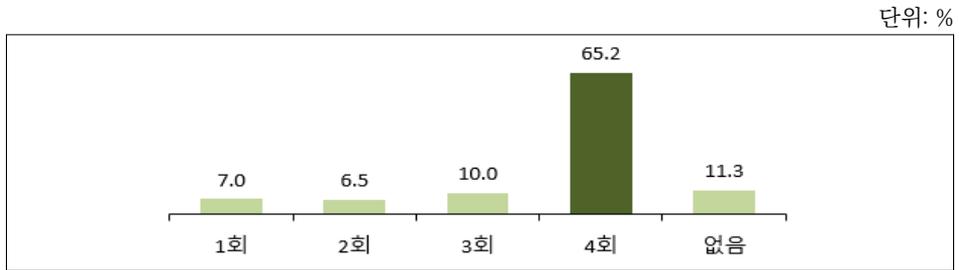
주: n=23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2.3. 농가 경영 관련 보험 수요

최근 5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횟수를 묻는 설문에 대해 ‘4회’가 6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없음’이 11.3%, ‘3회’ 10.0%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16>.

<그림 1-16> 최근 5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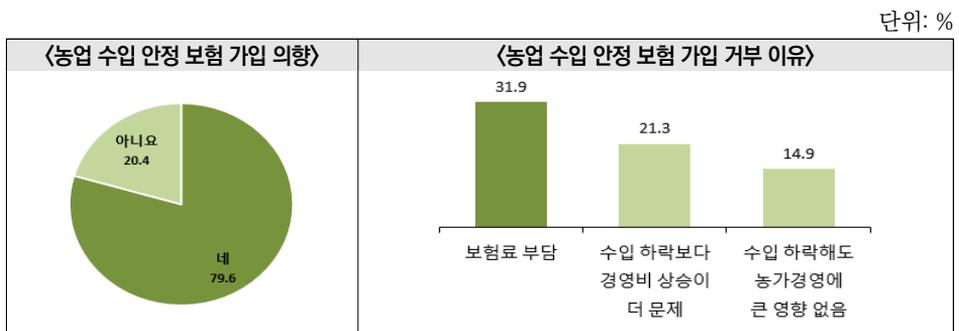


주: n=23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네’가 79.6%, ‘아니요’가 20.4%였다. 가입 거부 이유는 대표적으로 ‘보험료 부담 (31.9%)’, ‘수입 하락보다 경영비 상승이 더 문제(21.3%)’, ‘수입 하락해도 농가 경영에 큰 영향 없음(14.9%)’으로 나타났다<그림 1-17>.

<그림 1-17>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주: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의향’은 n=230,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거부 이유’는 n=47인.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지역별로 가입 의향 비율을 살펴보면, '충남'이 8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남' 83.3%, '충북' 81.8%, '전북'과 '경북' 각각 80.0%, '경남' 76.0%, '경기' 75.7%, '강원' 73.3%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 '20년 미만' 농가의 가입 의향 비율은 72.9%이며, '20년 이상' 농가의 가입 의향 비율은 81.3%이다. 응답자 연령대를 보면 '60대'의 가입 의향이 79.8%로 가장 높다<표 1-4>.

〈표 1-4〉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요	
전체	230	79.6	20.4	
거주 지역	경기	37	75.7	24.3
	충남	32	84.4	15.6
	충북	11	81.8	18.2
	전북	40	80.0	20.0
	전남	42	83.3	16.7
	경북	25	80.0	20.0
	경남	25	76.0	24.0
영농 경력	20년 미만	48	72.9	27.1
	20년 이상	182	81.3	18.7
성별	남성	219	80.8	19.2
	여성	11	54.5	45.5
연령대	60세 미만	53	79.2	20.8
	60대	84	79.8	20.2
	70대 이상	93	79.6	20.4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거부 이유를 보면,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가 3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수입 하락보다 경영비 상승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21.3%, '수입이 하락해도 농가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14.9% 순으로 높다. 거부 이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37.5%), 전남(42.9%), 경남(50.0%) 지역 응답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경기(33.3%)는 수입 하락보다는 경영비 상승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연령대와 관계없이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한 거부 비율이 높다<표 1-5>.

〈표 1-5〉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거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수입 하락보다는 경영비 상승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이 하락해도 농가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기타
전체		47	31.9	21.3	14.9	31.9
거주 지역	경기	9	11.1	33.3	0.0	55.6
	충남	5	20.0	20.0	20.0	40.0
	충북	2	50.0	0.0	50.0	0.0
	전북	8	37.5	12.5	12.5	37.5
	전남	7	42.9	0.0	28.6	28.5
	경북	5	40.0	40.0	20.0	0.0
	경남	6	50.0	16.7	16.7	16.6
강원	4	0.0	50.0	0.0	50.0	
영농 경력	20년 미만	13	23.1	23.1	7.7	46.1
	20년 이상	34	35.3	20.6	17.6	26.5
성별	남성	42	33.3	21.4	14.3	31.0
	여성	5	20.0	20.0	20.0	40.0
연령대	60세 미만	11	36.4	27.3	0.0	36.3
	60대	17	29.4	17.6	11.8	41.2
	70대 이상	19	31.6	21.1	26.3	21.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소득안정계정은 정부 지원으로 농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매년 예금하고, 자연재해나 가격하락으로 농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을 위해 농가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네’ 62.6%, ‘아니요’ 37.4%로 응답하였다<표 1-6>.

〈표 1-6〉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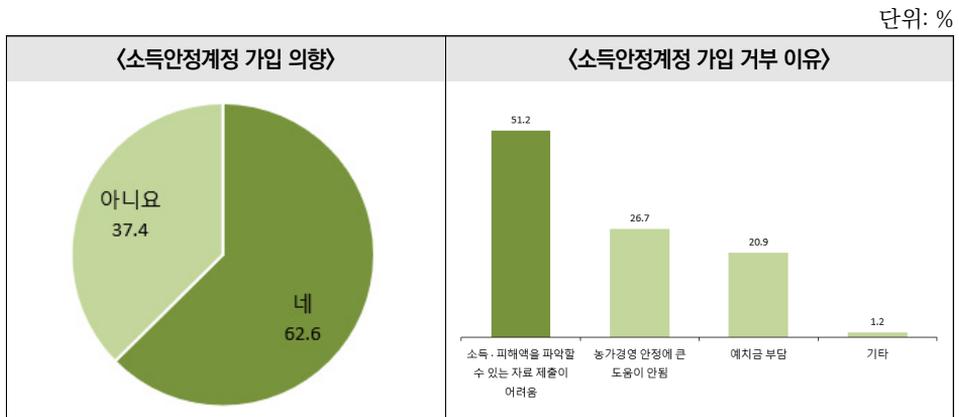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요	
전체	230	62.6	37.4	
거주 지역	경기	37	51.4	48.6
	충남	32	71.9	28.1
	충북	11	72.7	27.3
	전북	40	57.5	42.5
	전남	42	61.9	38.1
	경북	25	68.0	32.0
	경남	25	72.9	28.0
	강원	15	53.3	46.7
영농 경력	20년 미만	48	62.4	37.6
	20년 이상	182	62.6	37.4
성별	남성	219	64.4	35.6
	여성	11	27.3	72.7
연령대	60세 미만	53	62.3	37.7
	60대	84	56.0	44.0
	70대 이상	93	68.8	31.2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거부 이유를 보면, ‘소득·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움’이 5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안 됨’이 26.7%, ‘예치금 부담’이 20.9% 순으로 높다(그림 1-18).

〈그림 1-18〉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주: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은 n=230,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는 n=86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소득이
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를 이유로 한 거부 비
율이 가장 높다. 영농경력 ‘20년 미만’의 농가와 ‘20년 이상’의 농가에서도 ‘소득
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를 이유로 한 거부
비율이 가장 높다<표 1-7>.

〈표 1-7〉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치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소득안정계정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기타	
전체	86	20.9	26.7	51.2	1.2	
거주 지역	경기	18	11.1	16.7	72.2	0.0
	충남	9	33.3	11.1	55.6	0.0
	충북	3	33.3	0.0	66.7	0.0
	전북	17	23.5	35.3	41.2	0.0
	전남	16	12.5	37.5	43.8	6.3
	경북	8	37.5	37.5	25.0	0.0
	경남	7	28.6	28.6	42.9	0.0
강원	7	0.0	28.6	71.4	0.0	
영농 경력	20년 미만	18	27.8	22.2	44.4	5.6
	20년 이상	68	19.1	27.9	52.9	0.0
성별	남성	78	23.1	29.5	46.2	1.3
	여성	8	0.0	0.0	100.0	0.0
연령대	60세 미만	20	39.9	25.0	35.1	0.0
	60대	37	8.1	18.9	70.3	2.7
	70대 이상	29	24.1	37.9	37.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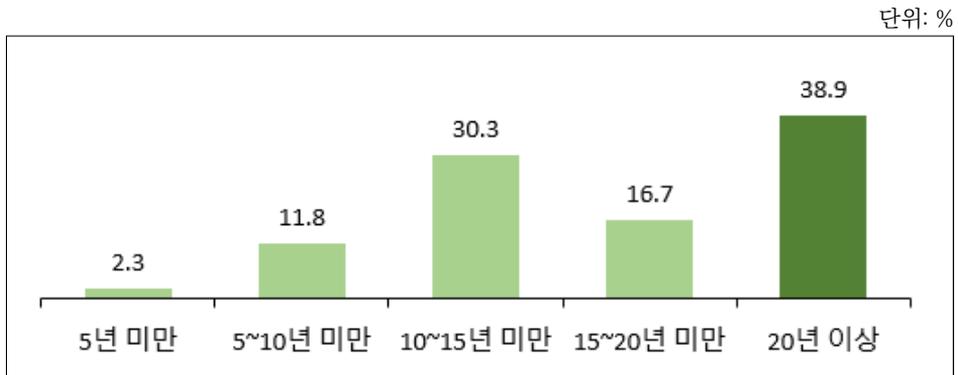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3. 과수 및 채소 농가 조사 결과

3.1. 영농경력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3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15년 미만'이 30.3%, '15~20년 미만'이 16.7%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19>.

<그림 1-19> 영농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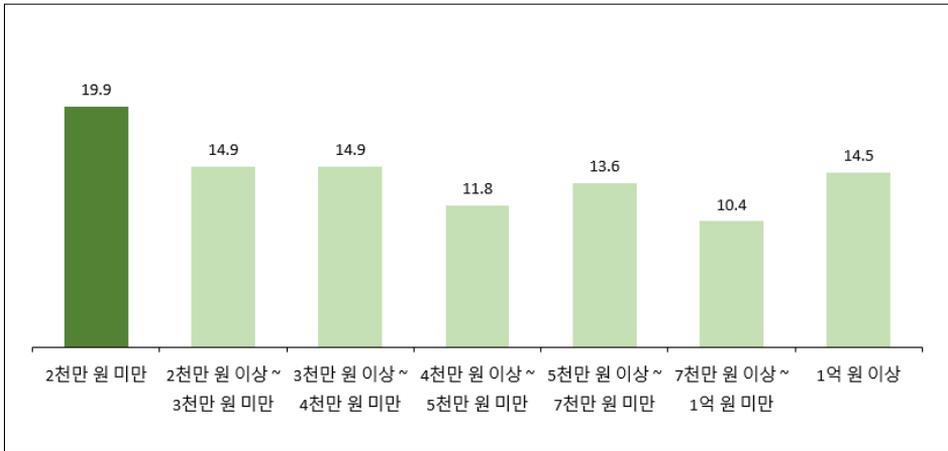
주: n=22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재배 농산물 총 판매액(조수입) 비율은 '2천만 원 미만'이 1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과 '3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이 각각 14.9%, '1억 원 이상'이 14.5%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20>.

〈그림 1-20〉 조수입

단위: %



주: n=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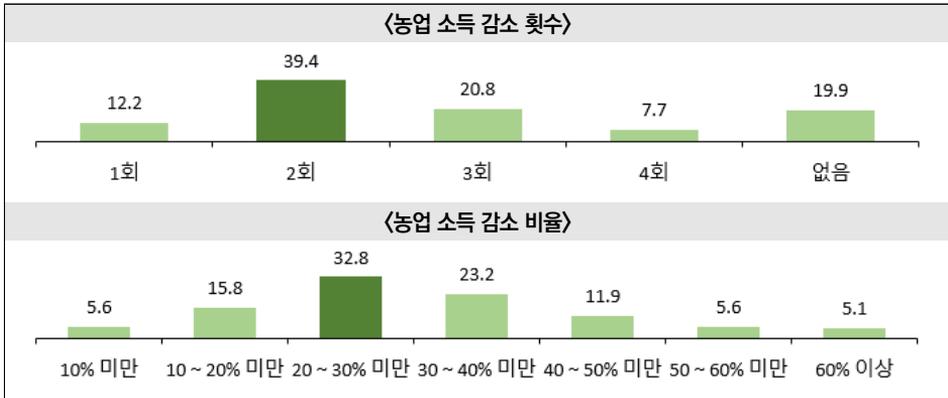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3.2. 농가 경영 관련 위험 요인

최근 5년간 농업 소득이 평년(최근 5년 평균)보다 감소한 횟수 및 비율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농업 소득이 감소한 횟수를 보면 '2회'가 39.4%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3회' 20.8%, '없음' 19.9% 등의 순으로 높다. 감소 비율은 '20~30% 미만'이 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30~40% 미만'이 23.2%, '10~20% 미만'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21).

〈그림 1-21〉 농업 소득 감소 횟수 및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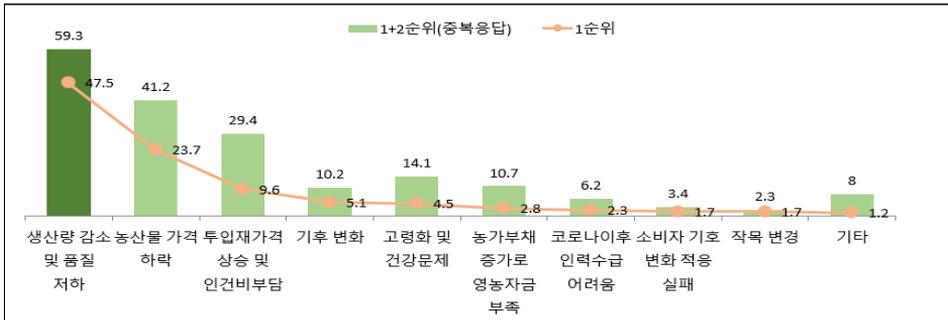


주: '농업 소득 감소 횟수'는 n=221, '농업 소득 감소 비율'은 n=177(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업 소득이 감소하는 주된 요인을 묻는 설문문의 응답에 대해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가 5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격 하락' 41.2%, '투입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부담' 29.4% 등의 순으로 높다. 1순위 기준으로 보면,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가 4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격 하락'이 23.7%, '투입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부담' 9.6%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22).

〈그림 1-22〉 농업 소득 감소의 주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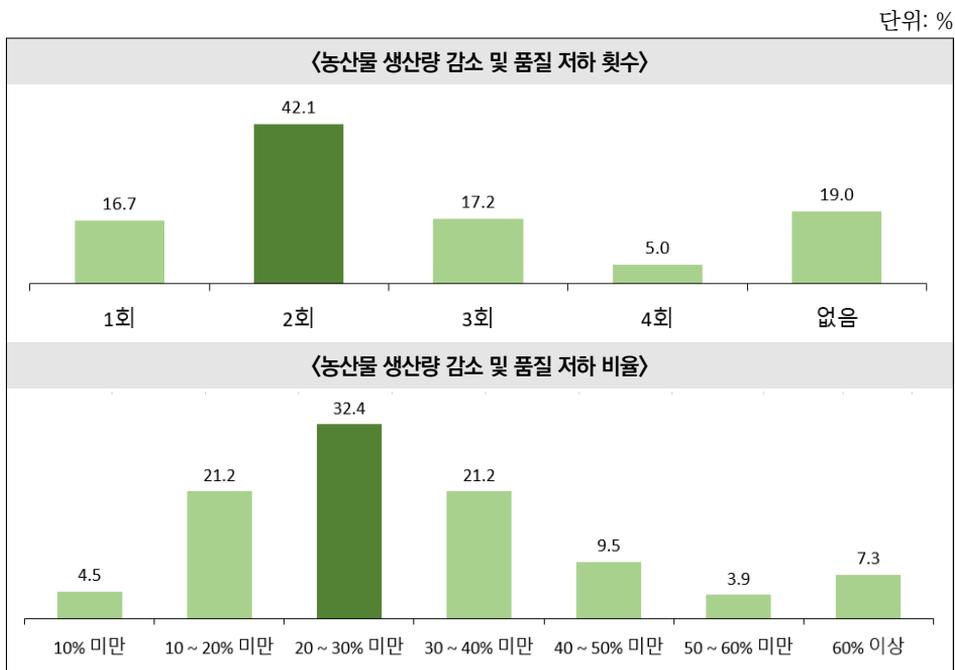
주 1) n=177.

2) 1+2순위의 경우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와 비율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횟수는 '2회'가 4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없음'이 19.0%, '3회' 17.2% 등의 순으로 높다. 비율은 '20~30% 미만'이 3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20% 미만'과 '30~40% 미만'이 각각 21.2%, '40~50% 미만' 9.5%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23).

〈그림 1-23〉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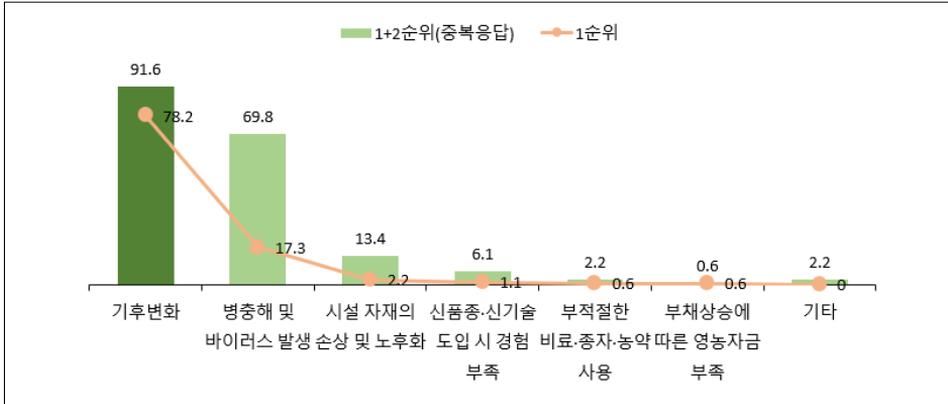
주: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는 n=221,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은 n=179(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에 대한 응답을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기후변화'가 9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 및 바이러스 발생' 69.8%, '시설 자재의 손상 및 노후화' 13.4% 등의 순으로 높다. 1순위 기준으로 보면, '기후변화'가 7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 및 바이러스 발생' 17.3%, '시설 자재의 손상 및 노후화' 2.2%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24).

〈그림 1-24〉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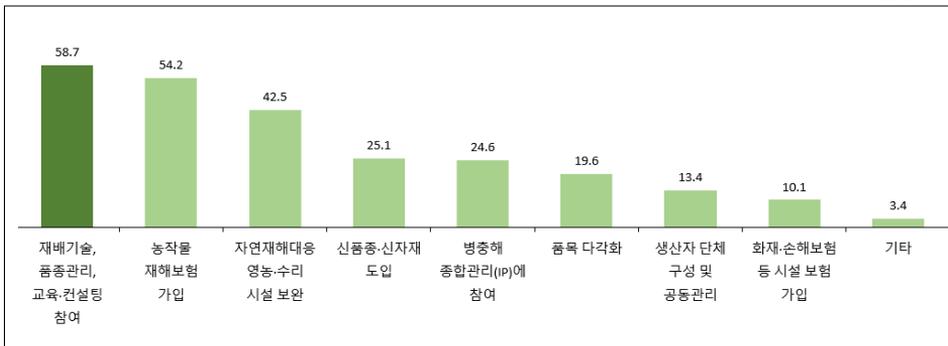
주: n=179.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에 대한 설문 응답 비율(중복응답)을 보면, ‘재배기술, 품종관리, 교육·컨설팅 참여’가 5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54.2%, ‘자연재해대응 영농·수리 시설 보완’ 42.5%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25).

〈그림 1-25〉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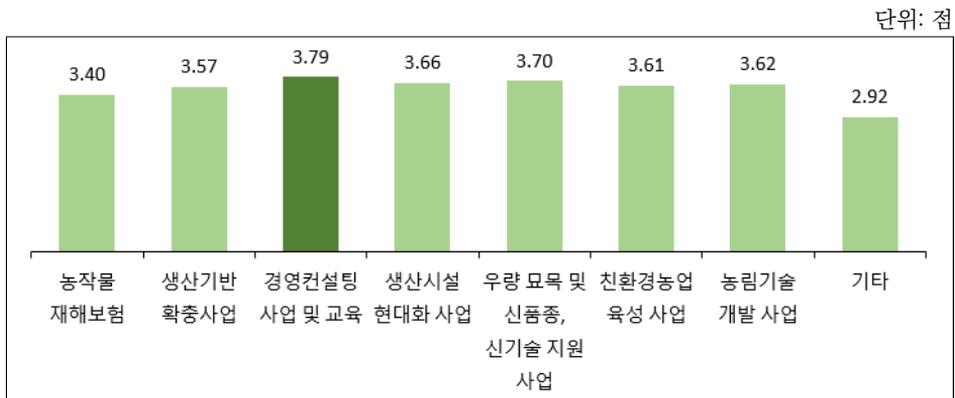


주: n=179.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7점 만점)에 대한 응답 점수는 ‘경영컨설팅 사업 및 교육’이 3.7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우량 묘목 및 신제품, 신기술 지원사업’ 3.70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66점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26>.

<그림 1-26>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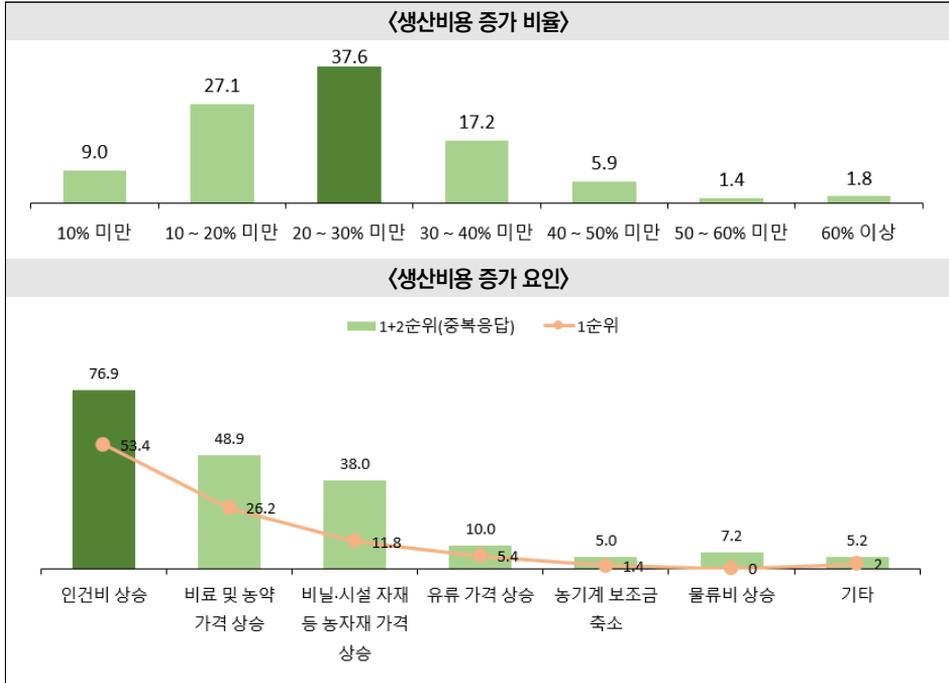
주: n=22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생산요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비율 및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생산비용 증가 비율에 대한 응답은 ‘20~30% 미만’이 3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20% 미만’ 27.1%, ‘30~40% 미만’이 17.2% 등의 순으로 높다. 생산비용 증가 요인을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이 7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 48.9%, ‘비닐·시설 자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 38.0%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27>.

〈그림 1-27〉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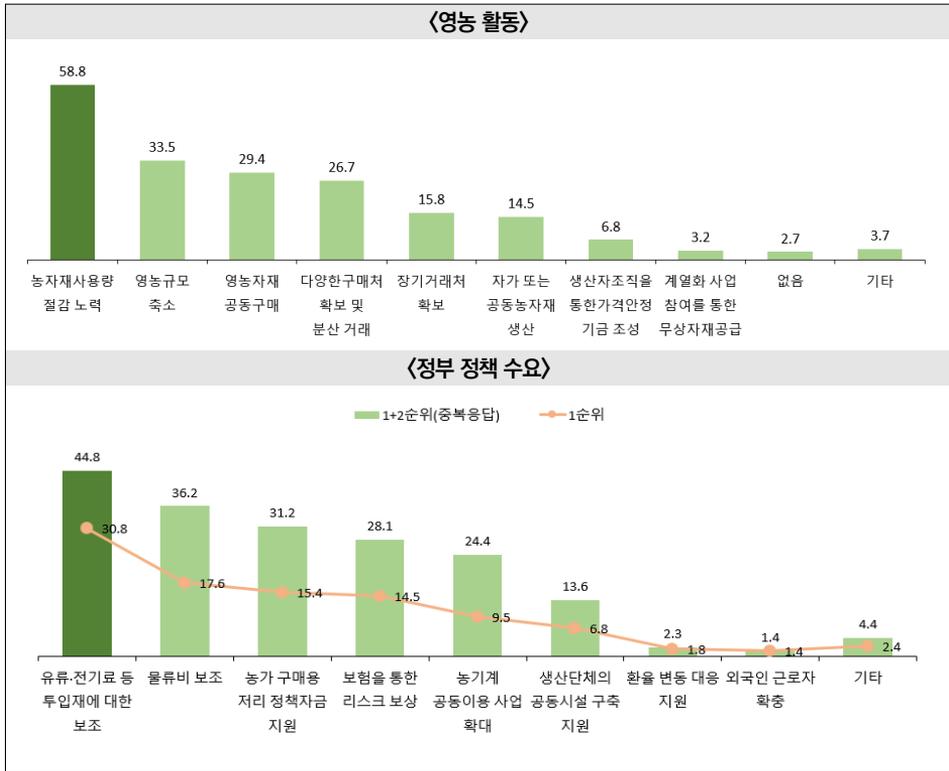
주: n=22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응답자가 수행한 영농 활동의 종류와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설문하였다.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을 보면, ‘농자재 사용량 절감 노력’이 5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영농규모 축소’ 33.5%, ‘영농자재 공동구매’ 29.4% 등의 순으로 높다.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요를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유류·전기료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가 4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물류비 보조’ 36.2%, ‘농가 구매용 저리 정책자금 지원’ 31.2%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28).

〈그림 1-28〉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 및 정부 정책 수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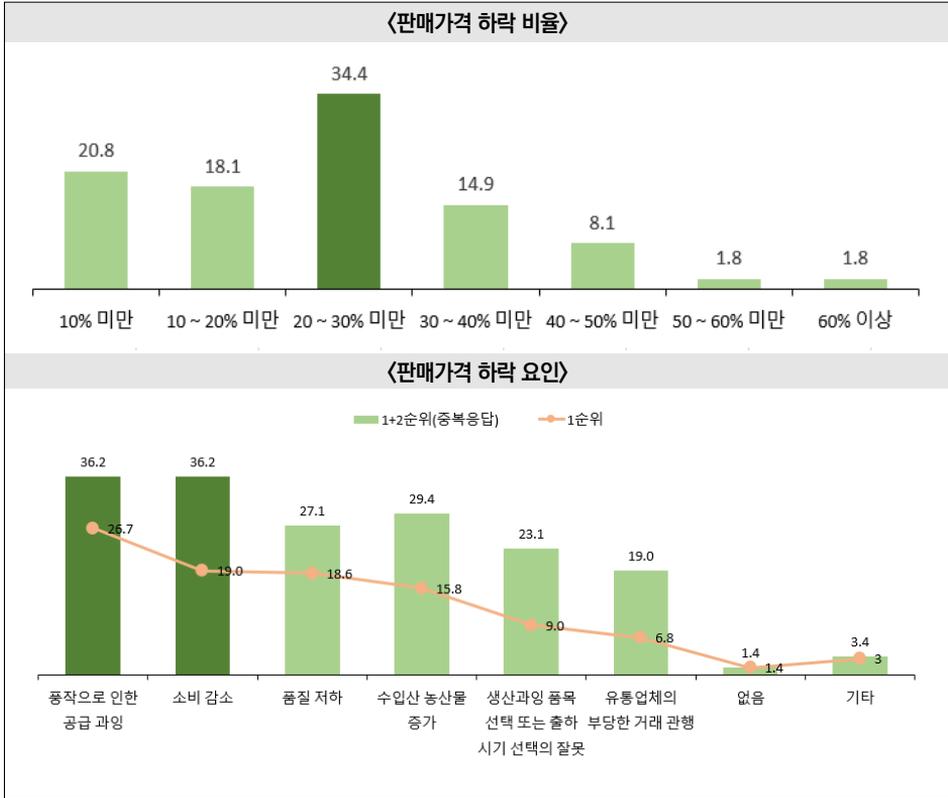
주: n=22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대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하락한 비율 및 하락 요인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30% 미만’이 3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 미만’ 20.8%, ‘10~20% 미만’ 18.1% 등의 순으로 높다. 판매가격 하락 요인을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 ‘소비 감소’가 각각 36.2%로 가장 높고, ‘수입산 농산물 증가’ 29.4%, ‘품질 저하’ 27.1%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29).

〈그림 1-29〉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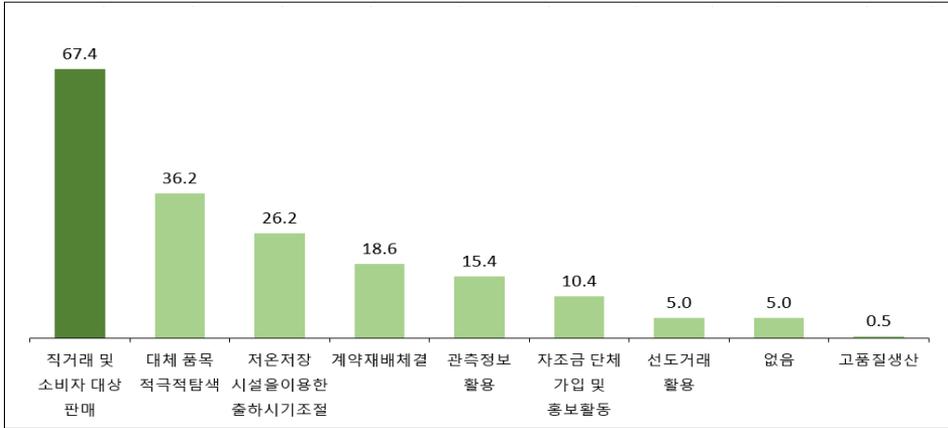
주: n=22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영농 활동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면, ‘직거래 및 소비자 대상 판매’가 6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체 품목 적극적 탐색’ 36.2%, ‘저온저장 시설을 이용한 출하시기 조절’ 26.2%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30).

〈그림 1-30〉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영농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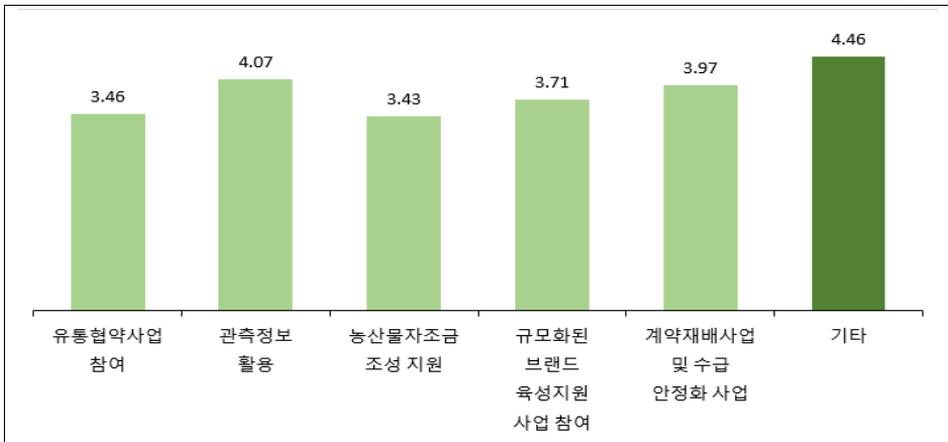
주: n=22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기타'가 4.4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관측정보 활용'이 4.07점, '계약재배사업 및 수급 안정화 사업' 3.97점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31).

〈그림 1-31〉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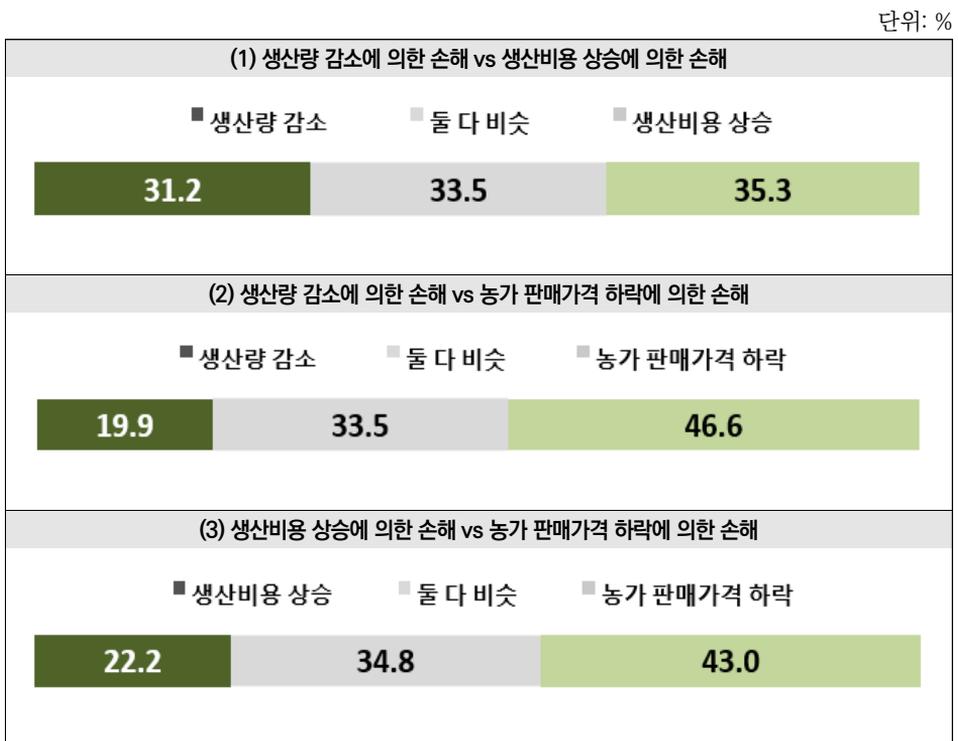


주: n=22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다양한 요인이 농업 경영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요인 중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영향력의 대소를 비교하는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주관적 위험 요인에 대한 잠재적 손실 크기를 비교하였다.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 중에서는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가 35.3%로 더 높다.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중에서는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가 46.6%로 더 높다.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중에서는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가 43.0%로 더 높다(그림 1-32).

〈그림 1-32〉 농업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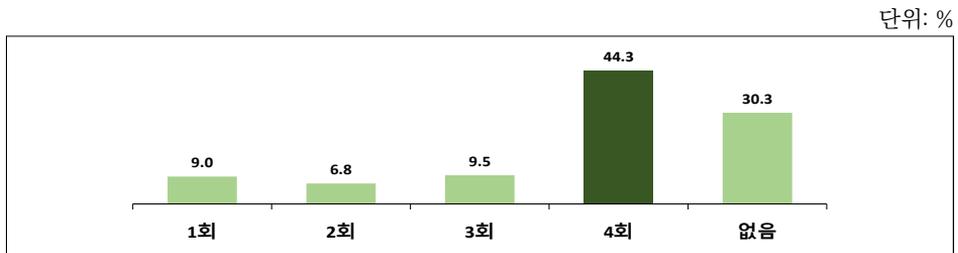
주: n=22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3.3. 농가 경영 관련 보험 수요

최근 5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횟수는 ‘4회’가 44.3%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없음’ 30.3%, ‘3회’ 9.5%, ‘1회’ 9.0%, ‘2회’ 6.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33>.

<그림 1-33> 최근 5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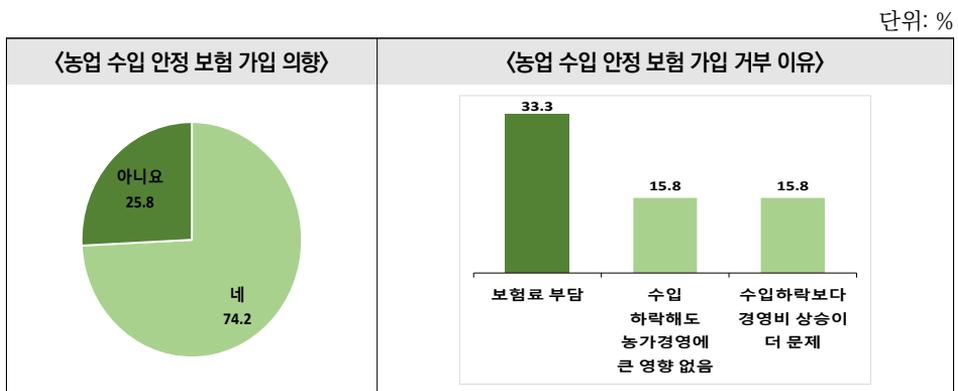


주: n=22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업 수입 안정 보험을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네’ 74.2%, ‘아니요’ 25.8%의 비율로 응답하였다<그림 1-34>.

<그림 1-34>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주: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의향’은 n=221,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거부 이유’는 n=57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입 의향에 대한 응답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수와 채소 농가 모두 ‘네’가 74%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81.0%로 가입 의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전남(79.2%), 충남(76.5%)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과 관계없이 가입 의향 비율은 60% 이상이다<표 1-8>.

<표 1-8>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요
전체		221	74.2	25.8
세부 영농형태	과수	140	74.3	25.7
	채소	81	74.0	26.0
거주 지역	경기	16	68.8	31.3
	충남	17	76.5	23.5
	충북	21	81.0	19.0
	전북	19	68.4	31.6
	전남	24	79.2	20.8
	경북	50	72.0	28.0
	경남	39	74.4	25.6
	강원	28	71.4	28.6
영농 경력	20년 미만	135	68.9	31.1
	20년 이상	86	82.6	17.4
성별	남성	188	73.9	26.1
	여성	33	75.8	24.2
연령대	60세 미만	75	74.7	25.3
	60대	86	76.7	23.3
	70대 이상	60	70.0	3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거부 이유를 보면,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가 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기타’가 35.1%로 높다. 거부 이유에 대한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수 농가는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한 거부 비율이 가장 높 또한 영농경력과 관계없이 보험료 부담에 대한 선택률이 가장 높다<표 1-9>.

〈표 1-9〉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입 거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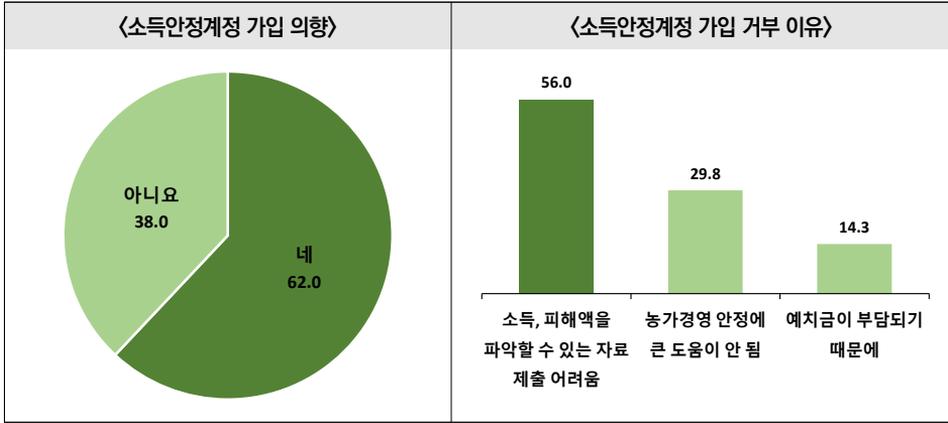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수입이 하락해도 농가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수입 하락보다는 경영비 상승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타
전체		57	15.8	33.3	15.8	35.1
세부 영농형태	과수	36	13.9	33.3	19.4	33.4
	채소	21	21.3	33.3	9.5	35.9
거주 지역	경기	5	0.0	0.0	20.0	80.0
	충남	4	25.0	25.0	25.0	25.0
	충북	4	0.0	25.0	25.0	50.0
	전북	6	33.3	33.3	0.0	33.4
	전남	5	20.0	60.0	0.0	20.0
	경북	14	21.4	28.6	14.3	35.7
	경남	10	10.0	40.0	20.0	30.0
	강원	8	12.5	37.5	25.0	25.0
영농 경력	20년 미만	42	14.3	33.4	14.3	38.0
	20년 이상	15	20.0	33.3	20.0	26.7
성별	남성	49	15.8	33.3	15.8	35.1
	여성	8	25.0	25.0	25.0	25.0
연령대	60세 미만	19	5.3	21.0	14.3	59.4
	60대	20	15.0	50.0	15.0	20.0
	70대 이상	18	27.8	27.8	16.7	27.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과 거부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은 ‘네’ 62.0%, ‘아니요’ 38.0%의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1-35).

〈그림 1-35〉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단위: %



주: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은 n=221,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는 n=84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입 의향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채소 농가는 66.7%, 과수 농가는 59.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4.4%, '충북' 71.4%, '충남' 70.6%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인 응답자의 가입 의향 비율은 65.1%, '20년 미만'은 60.0%로 나타났다〈표 1-10〉.

〈표 1-10〉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오
전체		221	62.0	38.0
세부 영농형태	과수	140	59.3	40.7
	채소	81	66.7	33.3
거주 지역	경기	16	62.5	37.5
	충남	17	70.6	29.4
	충북	21	71.4	28.6
	전북	19	52.6	47.4
	전남	24	58.3	41.7
	경북	50	52.0	48.0
	경남	39	74.4	25.6
	강원	28	50.0	50.0

(계속)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요
영농 경력	20년 미만	135	60.0	40.0
	20년 이상	86	65.1	34.9
성별	남성	188	63.3	36.7
	여성	33	54.5	45.5
연령대	60세 미만	75	60.0	40.0
	60대	86	67.4	32.6
	70대 이상	60	56.7	43.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수 농가는 자료 제출의 어려움에 대한 비율(59.6%)이 높으며, 채소 농가도 자료 제출의 어려움에 대한 비율(48.2%)이 높다. 영농경력 '20년 미만'의 경우 자료 제출의 어려움(48.2%), '20년 이상'의 경우 또한 자료 제출의 어려움(70.0%)을 가장 중요한 거부 이유로 제시하였다(표 1-11).

〈표 1-11〉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치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소득안정계정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		84	14.3	29.8	56.0
세부 영농형태	과수	57	12.3	28.1	59.6
	채소	27	18.5	33.3	48.2
거주 지역	경기	6	0.0	16.7	83.3
	충남	5	0.0	40.0	60.0
	충북	6	0.0	33.3	66.7
	전북	9	22.2	33.3	44.4
	전남	10	10.0	0.0	90.0
	경북	24	20.8	33.3	45.8
	경남	10	20.0	20.0	60.0
	강원	14	14.3	50.0	35.7

(계속)

구분		사례 수	예치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소득안정계정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영농 경력	20년 미만	54	14.8	37.0	48.2
	20년 이상	30	13.3	16.7	70.0
성별	남성	69	13.0	34.8	52.2
	여성	15	20.0	6.7	73.3
연령대	60세 미만	30	13.3	33.3	53.4
	60대	28	10.7	28.6	60.7
	70대 이상	26	19.2	26.9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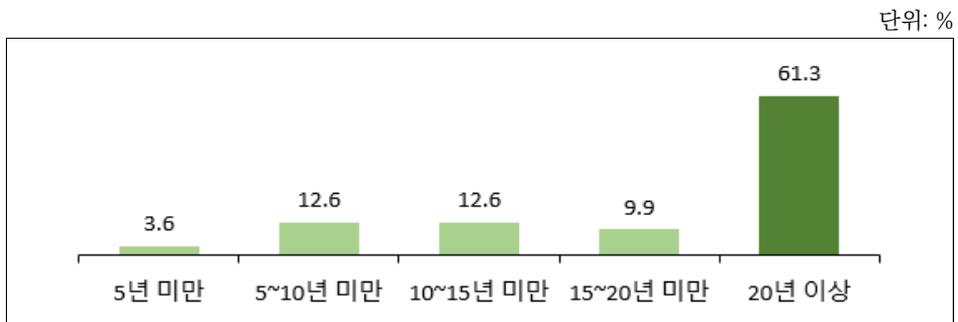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4. 축산 농가 조사 결과

4.1. 축산경력

축산경력은 ‘20년 이상’이 6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5~10년 미만’과 ‘10~15년 미만’이 각각 12.6%, ‘15~20년 미만’ 9.9%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36).

〈그림 1-36〉 축산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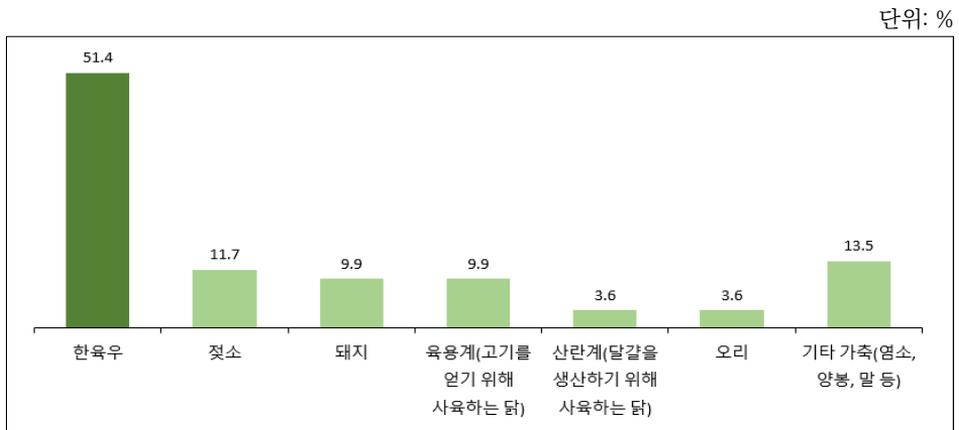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주요 사육 축종에 대한 응답을 보면, ‘한육우’가 5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기타 가축(염소, 양봉, 말 등)’이 13.5%, ‘젖소’ 11.7%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37>.

<그림 1-37> 최근 5년간 주요 사육 축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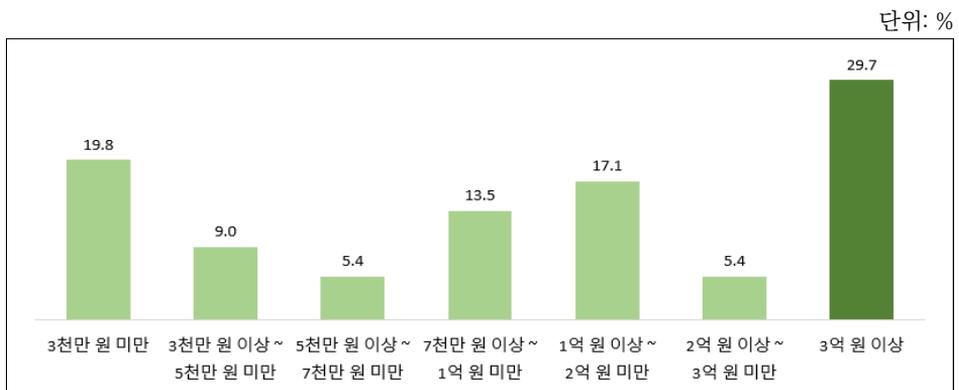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조수입은 ‘3억 원 이상’이 2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3천만 원 미만’이 19.8%,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17.1%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38>.

<그림 1-38> 조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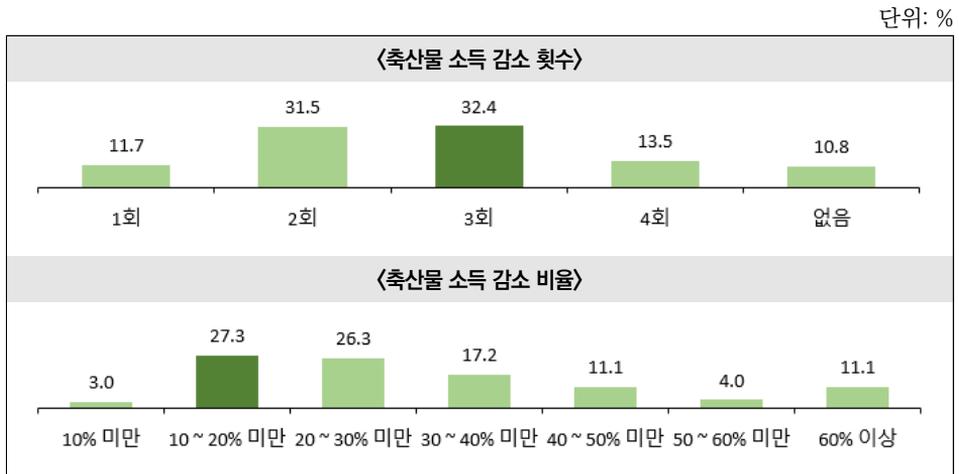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4.2. 축산 경영 관련 위험 요인

최근 5년간 축산물 소득이 평년(최근 5년 평균)보다 감소한 횟수 및 비율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감소한 횟수는 '3회'가 3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회' 31.5%, '4회' 13.5% 등의 순으로 높다. 감소 비율의 경우 '10~20% 미만'이 2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0~30% 미만' 26.3%, '30~40% 미만' 17.2%, '40~50% 미만' 11.1%, '60% 이상' 11.1%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39).

〈그림 1-39〉 축산물 소득 감소 횟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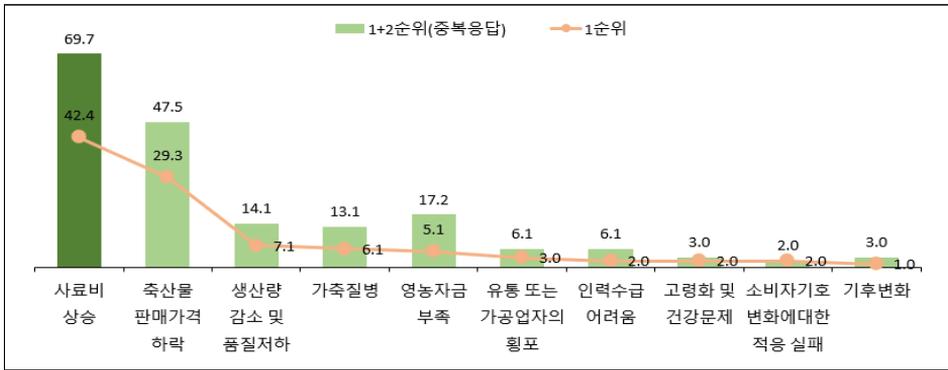


주: '축산물 소득 감소 횟수'는 n=111, '축산물 소득 감소 비율'은 n=99(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축산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주된 요인을 묻는 설문의 응답에 대해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사료비 상승'이 6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축산물 판매가격 하락' 47.5%, '영농 자금 부족' 17.2%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40).

〈그림 1-40〉 축산물 소득 감소의 주된 이유

단위: %



주 1) n=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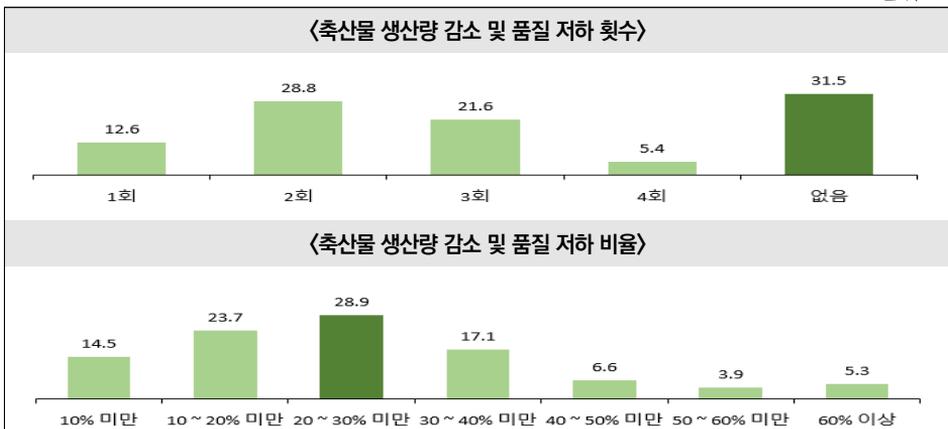
2) 1+2순위의 경우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의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 및 비율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횟수는 ‘없음’이 3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회’ 28.8%, ‘3회’ 21.6% 등의 순으로 높다. 비율은 ‘20~30% 미만’이 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20% 미만’ 23.7%, ‘30~40% 미만’ 17.1%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41).

〈그림 1-41〉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와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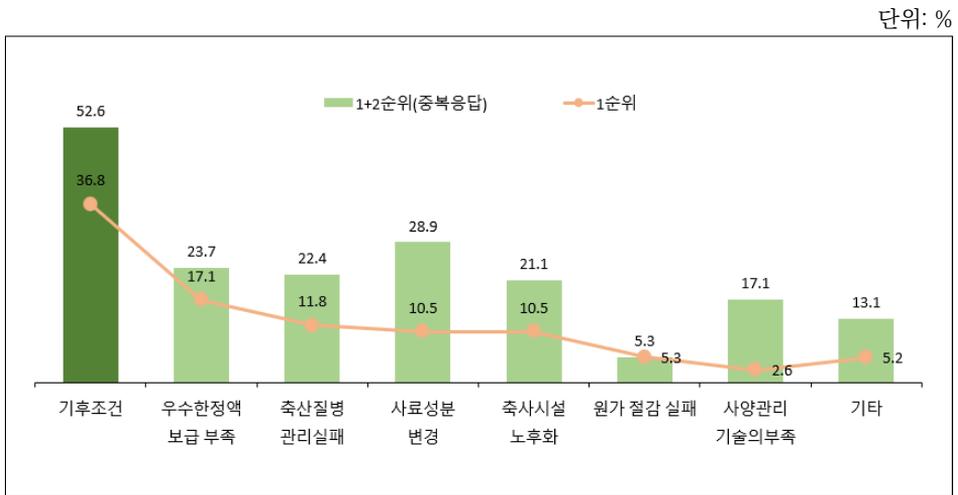


주: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는 n=111,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은 n=76(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에 대한 응답을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기후조건’이 5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료성분 변경’이 28.9%, ‘우수한 정액 보급 부족’이 23.7% 등의 순으로 높다. 1순위 기준으로 보면, ‘기후조건’이 3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우수한 정액 보급 부족’ 17.1%, ‘축산질병 관리 실패’ 11.8% 등의 순으로 높았다<그림 1-42>.

<그림 1-42>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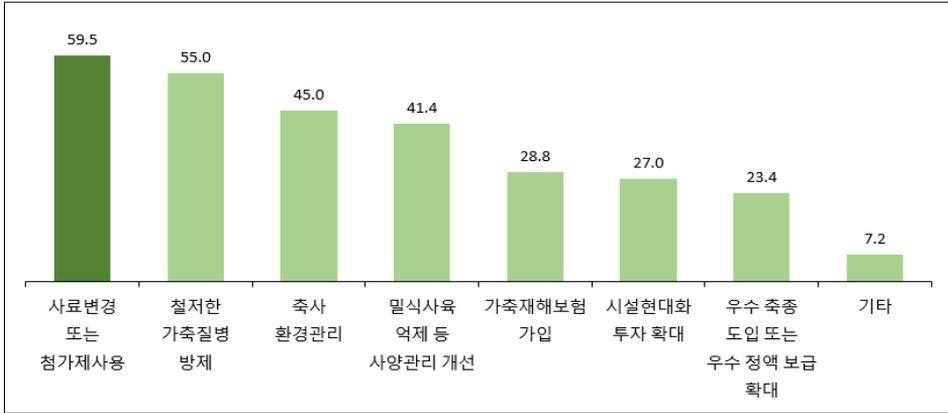
주: n=76.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축산 활동을 보면, ‘사료 변경 또는 첨가제 사용’이 5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철저한 가축질병 방제’ 55.0%, ‘축사 환경관리’ 45.0%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43>.

〈그림 1-43〉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축산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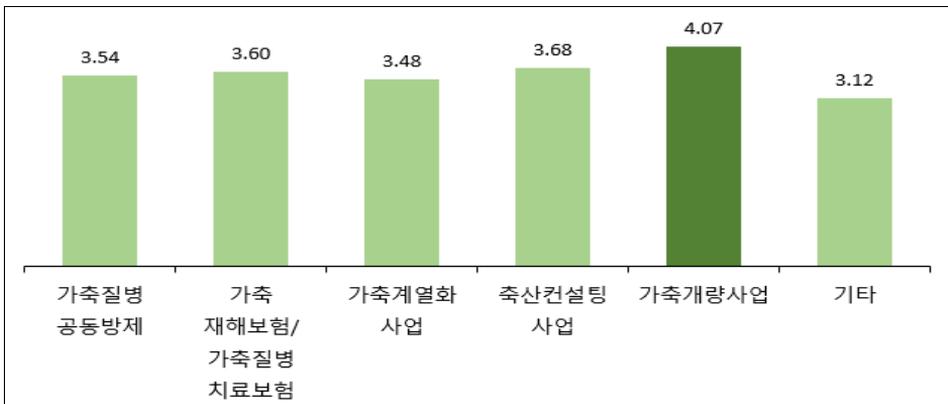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7점 만점)에 대한 응답 점수는 ‘가축개량사업’이 4.0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축산 컨설팅 사업’ 3.68점, ‘가축 재해보험/가축 질병 치료보험’ 3.60점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44).

〈그림 1-44〉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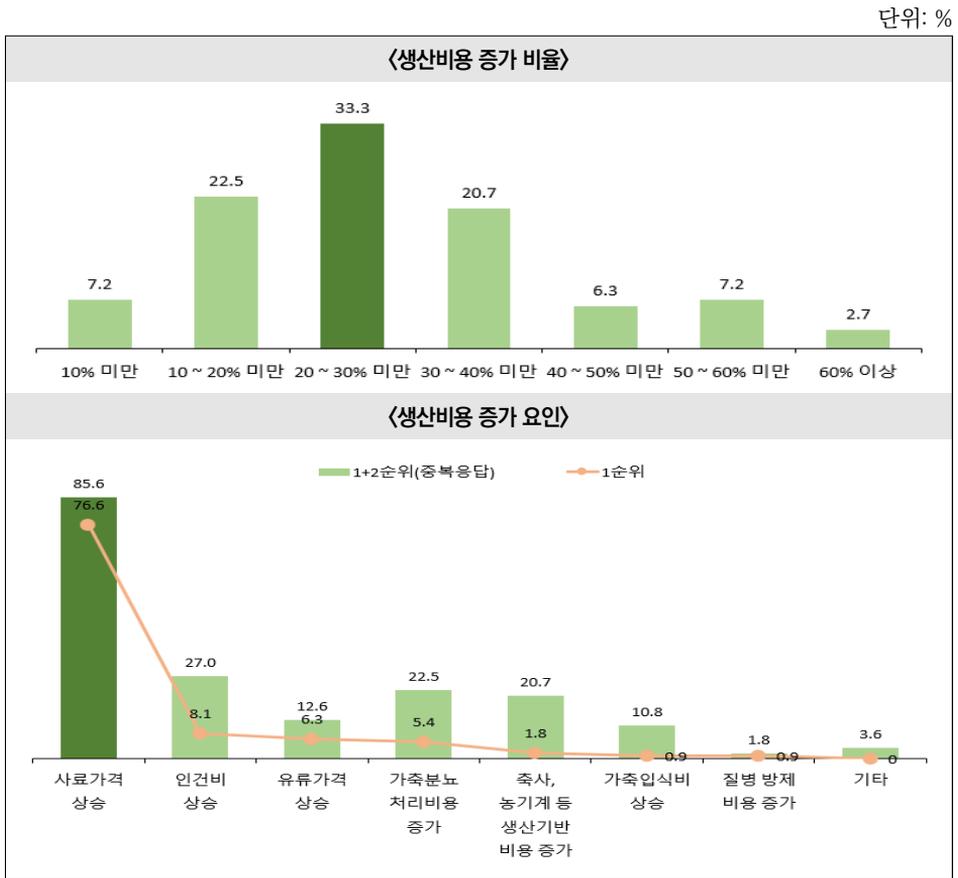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생산요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비율과 증가 요인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20~30% 미만'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20% 미만' 22.5%, '30~40% 미만'이 20.7% 등의 순으로 높다. 생산비용 증가 요인을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사료 가격 상승'이 8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인건비 상승' 27.0%, '가축분뇨 처리비용 증가' 22.5% 등의 순으로 높다 <그림 1-45>.

<그림 1-45>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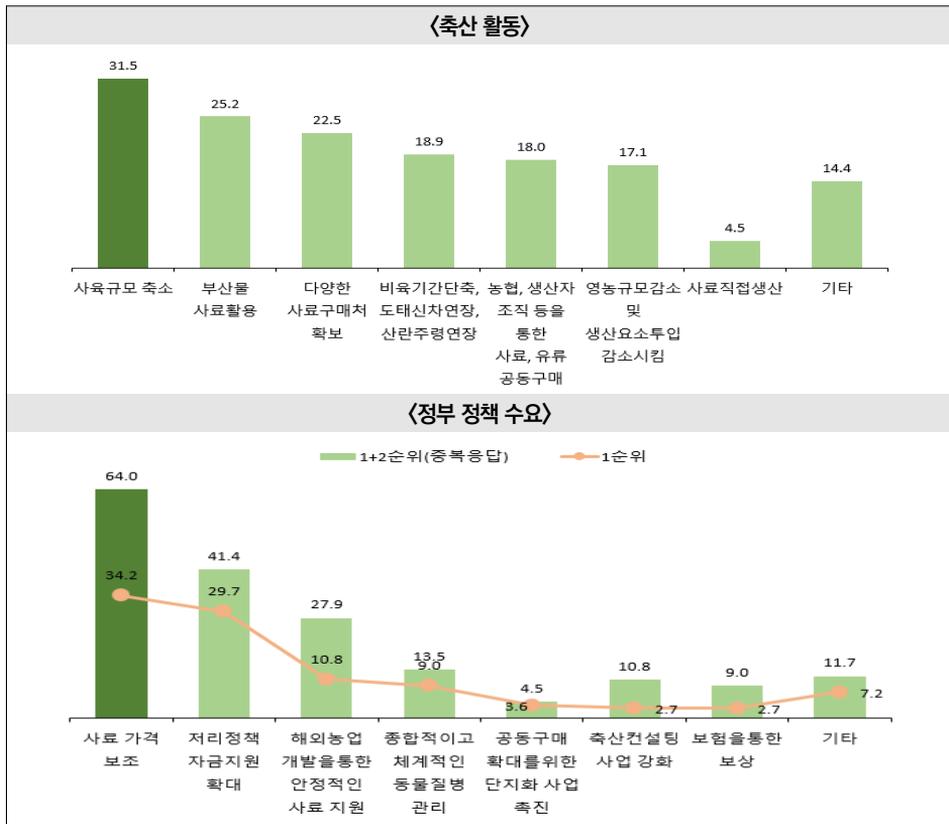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응답자가 수행한 축산 활동의 종류와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설문하였다.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축산 활동을 보면, '사육 규모 축소'가 3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부산물 사료 활용' 25.2%, '다양한 사료 구매처 확보' 22.5% 등의 순으로 높다.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요를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사료 가격 보조'가 6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 41.4%,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사료 지원' 27.9%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46>.

<그림 1-46>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축산 활동 및 정부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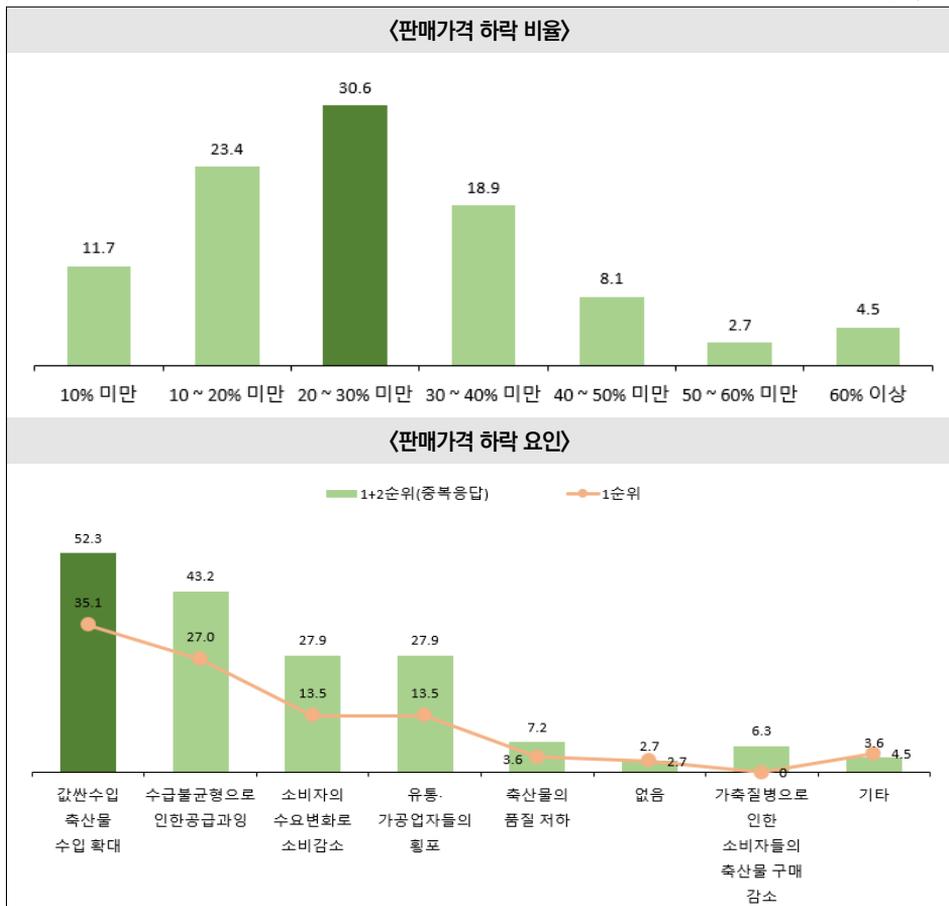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 축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대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하락한 비율 및 요인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20~30% 미만'이 3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20% 미만' 23.4%, '30~40% 미만' 18.9% 등의 순으로 높다. 판매가격 하락 요인을 1+2순위 기준으로 보면, '값싼 수입 축산물 확대'가 5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급 과잉' 43.2%, '소비자의 수요 변화로 소비 감소' 27.9%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47>.

<그림 1-47>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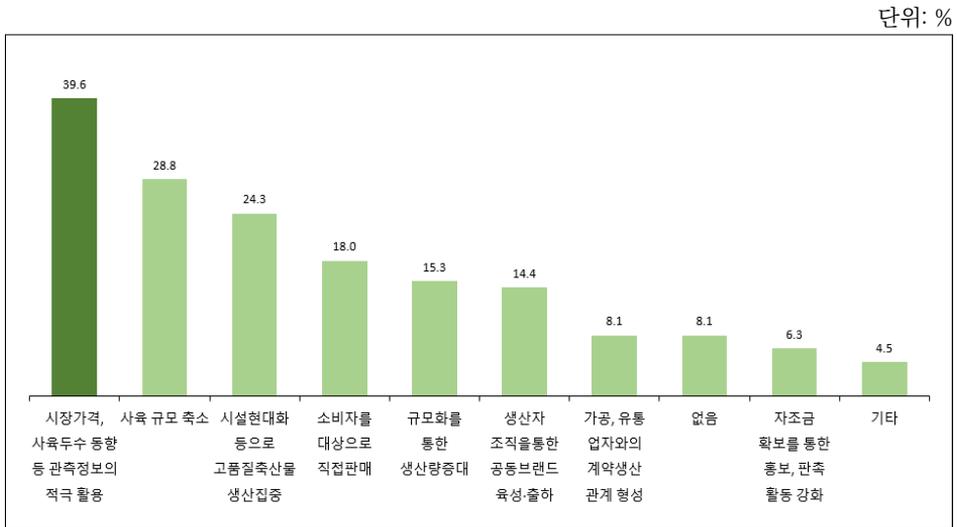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축산 활동 유형에 대한 설문 응답을 보면, ‘시장가격, 사육두수 동향 등 관측정보의 적극 활용’이 3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육 규모 축소’ 28.8%,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집중’ 24.3%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48>.

<그림 1-48>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축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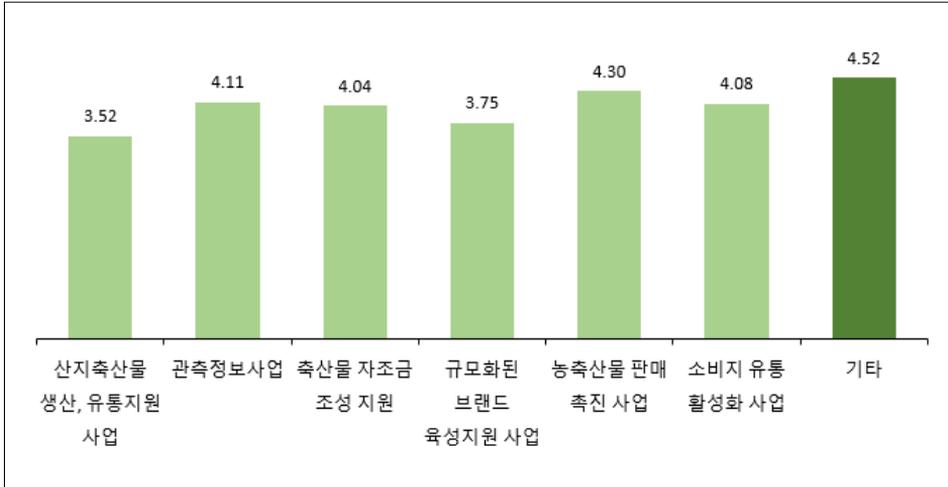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1순위 요인은 ‘기타’ 4.52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축산물 판매 촉진 사업’ 4.30점, ‘관측정보사업’ 4.11점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49>.

〈그림 1-49〉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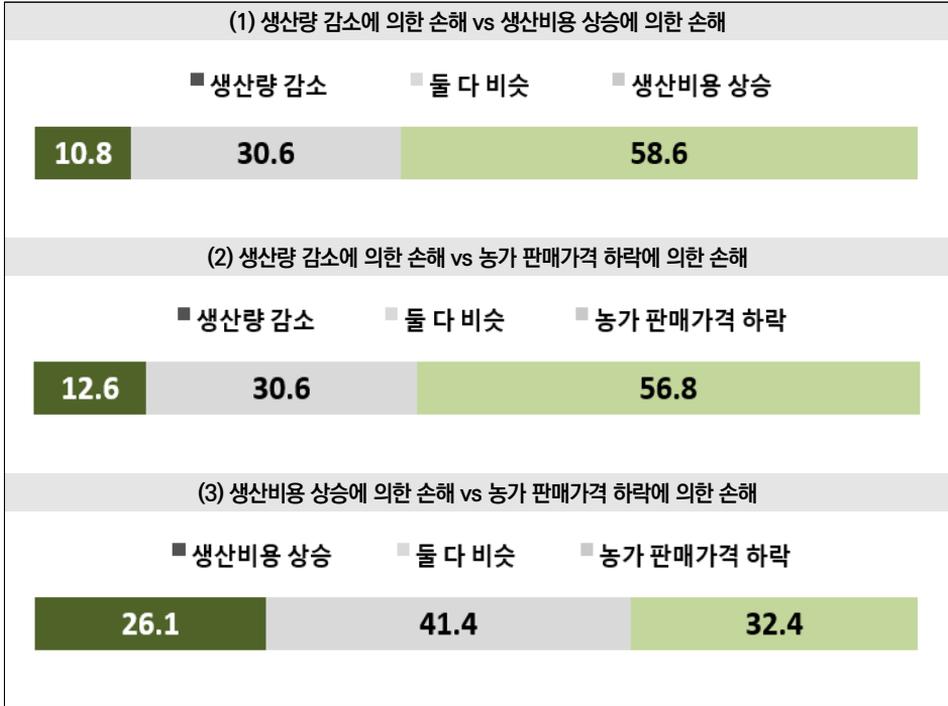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다양한 요인이 축산 경영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요인 중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영향력의 대소를 비교하는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주관적 위험 요인의 잠재적 손실 크기를 비교하였다.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 중에서는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가 58.6%로 더 높다.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중에서는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가 56.8%로 더 높다.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중에서는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가 32.4%로 더 높다(그림 1-50).

〈그림 1-50〉 축산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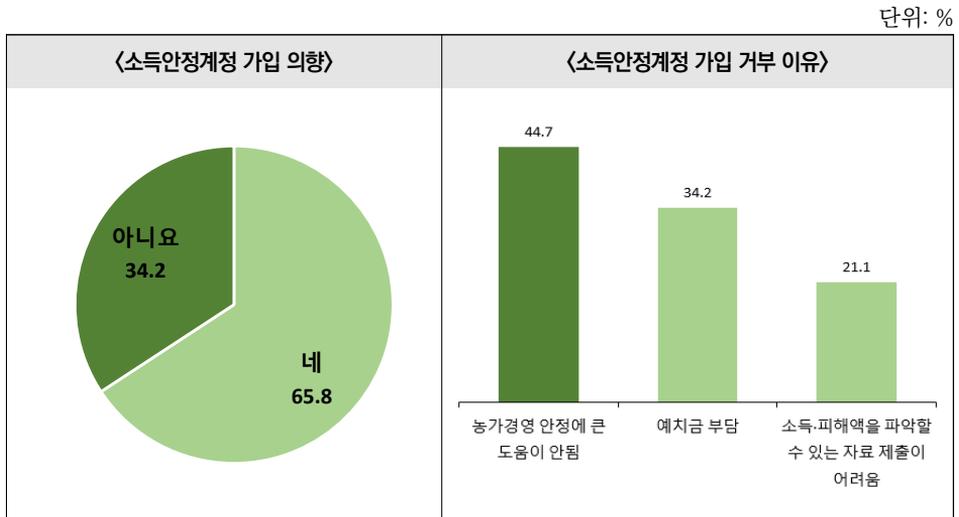
주: n=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4.3. 축산 경영 관련 보험 수요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과 거부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가입 의향에 대한 응답은 ‘네’ 65.8%, ‘아니요’ 34.2%였다<그림 1-51>.

<그림 1-51>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주: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은 n=111,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는 n=38(가입 의향 없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입 의향에 대한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육우’ 농가는 가입 의향 비율이 72.7%, ‘기타’ 농가는 57.8%, ‘양돈’ 농가는 63.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가입 의향 비율이 83.3%, ‘전북’과 ‘강원’은 각각 75.0%, ‘경기’와 ‘경북’은 각각 66.7%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 ‘20년 미만’의 응답자의 가입 의향 비율은 62.8%, ‘20년 이상’의 경우 67.6%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입 의향 비율이 높다<표 1-12>.

〈표 1-12〉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네	아니요
전체		111	65.8	34.2
사육 축종	한육우	55	72.7	27.3
	양돈	11	63.6	36.4
	기타	45	57.8	42.2
거주 지역	경기	15	66.7	33.3
	충남	13	38.5	61.5
	충북	7	57.1	42.9
	전북	12	75.0	25.0
	전남	17	64.7	35.3
	경북	18	66.7	33.3
	경남	12	83.3	16.7
	강원	16	75.0	25.0
영농 경력	20년 미만	43	62.8	37.2
	20년 이상	68	67.6	32.4
성별	남성	94	66.0	34.0
	여성	17	64.7	35.3
연령대	60세 미만	42	59.5	40.5
	60대	45	66.7	33.3
	70대 이상	24	75.0	25.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를 보면, ‘소득안정계정이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4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예치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34.2%, ‘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21.1% 순으로 높다. 가입 거부 이유에 대한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육우 농가는 ‘소득안정계정이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60.0%)를, 돼지 농가는 ‘예치금이 부담되기 때문에’(50.0%), ‘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50.0%)를, 기타 농가는 ‘소득안정계정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46.8%)를 이유로 한 거부 비율이 높았다. 또한 영농경력과 관계없이 ‘소득안정계정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를 이유로 한 거부 비율이 가장 높다(표 1-13).

〈표 1-13〉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치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소득안정계정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전체		38	34.2	21.1	44.7
사육 축종	한육우	15	26.7	13.3	60.0
	돼지	4	50.0	50.0	0.0
	기타	19	36.9	16.3	46.8
거주 지역	경기	5	40.0	0.0	60.0
	충남	8	50.0	50.0	0.0
	충북	3	0.0	0.0	100.0
	전북	3	66.7	0.0	33.3
	전남	6	33.3	33.3	33.3
	경북	6	0.0	33.3	66.7
	경남	2	50.0	0.0	50.0
	강원	4	25.0	0.0	75.0
영농 경력	20년 미만	16	31.3	18.8	49.9
	20년 이상	22	36.4	22.7	40.9
성별	남성	32	37.5	18.8	43.8
	여성	6	16.7	33.3	60.0
연령대	60세 미만	17	29.4	23.5	47.1
	60대	15	53.3	20.0	26.7
	70대 이상	6	0.0	16.7	83.3

주: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5. 시사점

5.1. 농업 유형별로 대체로 비슷한 경영 위험 요인 발생

농업 경영 위험 요인을 농가 수입 감소, 농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판매가격 하락,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위험 요인에 대한 농가의 대응 방식, 선호하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농업 유형(논/벼, 과채, 축산)에 따라 경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영 위험 주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도 농업 유형별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1-14).

〈표 1-14〉 농가 수입 감소 주요인 및 세부 요인(요약)

구분		세부 요인		
		논/벼 농가	과채 농가	축산 농가
주요인	판매가격 하락	농산물 가격 하락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	사료비 상승
		생산량 감소 또는 품질 저하	소비 감소	축산물 가격 하락
			품질 저하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생산비용 상승 (원자재 등)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사료 가격 상승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인건비 상승	비닐·시설 자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	유류 가격 상승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기후조건	기후변화	기후조건	
	병충해	병충해 및 바이러스 발생	우수한 정액 보급 부족 축산 질병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논/벼 농가의 경우 농가 수입 감소에 미치는 주요인은 ① 판매가격 하락, ② 생산비용 상승, ③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이다. 판매가격 하락의 주원인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 또는 품질 저하이며, 생산비용 상승의 주원인은 주로

비료 및 농약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고,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주원인은 기후 조건과 병충해이다.

과채 농가의 경우 수입 감소의 주요인은 ① 판매가격 하락, ② 생산비용 상승, ③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이다. 판매가격 하락의 주원인은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 소비 감소, 품질 저하를 들 수 있다. 생산비용 상승의 주원인은 인건비 상승,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 비닐·시설 자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이다.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주원인은 기후변화, 병충해 및 바이러스 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

축산 농가의 경우 수입 감소 주요인은 ① 생산비용 상승, ② 판매가격 하락, ③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를 들 수 있다. 생산비용 상승의 주요인은 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유류 가격 상승이며, 판매가격 하락의 주요인은 사료비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를 들 수 있다.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주요인은 기후조건, 우수한 정액 보급 부족, 축산 질병이다.

5.2. 농업 유형별로 상이한 경영 위험 대처방식과 정책 선호도

농업 경영 위험 주요인과 세부 요인은 농업 유형별로 대체로 비슷하지만, 위험 대처방식과 선호하거나 만족하는 정부 정책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표 1-15).

논/벼 농가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재배기술/품종관리/교육컨설팅에 참여하며, 생산기반 확충사업, 우량 묘목 및 신품종 신기술 지원사업, 경영컨설팅 사업 및 교육, 농림기술 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을 선호한다. 생산비용 상승에는 농자재 사용량 절감 노력, 영농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주로 대응하며, 농자재비 보조, 유류·전기로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 농가 구매용 저리 정책자금 지원 등의 정부 정책 확대를 요구한다. 판매가격 하락의 위험에는 직거래 및 소비자 대상 판매, 계약재배 체결, 메벼와 찰벼 등 품종 다양화 등으로 대응하며, 계약재배 및 수급 안정화 사업, 시장 격리

제, 관측정보 활용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과채 농가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재배기술, 품종관리, 교육·컨설팅에 참여한다. 경영컨설팅 사업 및 교육, 우량묘목 및 신품종, 신기술 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생산비용 상승 문제에 대해 농자재 사용량 절감 노력, 영농규모 축소, 영농자재 공동구매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며, 유류·전기료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 물류비 보조, 농가 구매용 저리 정책자금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판매가격 하락의 어려움에 직거래 및 소비자 대상 판매, 대체 품목 적극적 탐색, 저온저장 시설을 이용한 출하시기 조절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며, 관측정보 활용, 계약재배 사업 및 수급안정화 사업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

〈표 1-15〉 경영 위험 대처방식과 정책 선호도(요약)

구분	논/벼 농가		과채 농가		축산 농가	
	대처방식	정책 선호	대처방식	정책 선호	대처방식	정책 선호
판매가격 하락	직거래 및 소비자 대상 판매	계약재배 및 수급안정화 사업	직거래 및 소비자 대상 판매	관측정보 활용	관측정보 적극 활용	농축산물 판매 촉진사업
	계약재배 체결	시장 격리제	대체 품목 적극적 탐색	계약재배 사업 및 수급안정화 사업	사육 규모 축소	관측정보 사업
	메벼와 찰벼 등 품종 다양화	관측정보 활용	저온저장 시설을 이용한 출하시기 조절		시설현대화 등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집중	
생산비용 상승 (원자재 등)	농자재 사용량 절감 노력	농자재비 보조	농자재 사용량 절감 노력	유류·전기료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	사육 규모 축소	사료가격 보조
	영농자재 공동구매	유류·전기료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	영농 규모 축소	물류비 보조	부산물 사료 활용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
		농가구매용 저리 정책자금 지원	영농자재 공동구매	농가 구매용 저리 정책자금 지원	다양한 사료 구매처 확보	

(계속)

구분	논/벼 농가		과채 농가		축산 농가	
	대처방식	정책 선호	대처방식	정책 선호	대처방식	정책 선호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생산기반 확충사업	재배기술, 품종관리, 교육·컨설팅 참여	경영컨설팅 사업 및 교육	사료 변경 또는 첨가제 사용	가축개량 사업
		우량묘목 및 신품종 신기술 지원사업			철저한 가축질병 방제	축산 컨설팅 사업
	재배기술/ 품종관리 /교육컨설팅 참여	경영컨설팅 사업 및 교육 농림기술 개발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우량 묘목 및 신품종, 신기술 지원 사업	축사 환경관리	가축재해보험/가축 질병치료 보험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축산 농가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에 대해 사료 변경 또는 첨가제 사용, 철저한 가축질병 방제, 축사 환경관리 등으로 대응한다. 가축개량 사업, 축산 컨설팅 사업, 가축재해보험/질병치료보험 등 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 생산비용 상승 위험은 사육 규모 축소, 부산물 사료 활용, 다양한 사료 구매처 확보 등으로 대응하며, 사료가격 보조,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의 정부 정책을 선호한다. 판매가격 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측정보 적극 활용, 사육 규모 축소,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집중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농축산물 판매 촉진사업, 관측정보 사업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한다.

따라서 경영 위험 감소를 위한 농가의 대처방식과 정책 선호도를 인식하고 이 질적인 정책 개선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부 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조사의 개인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농업경영위험 실태 및 의견조사표 : 벼농가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가 겪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실제 피해 규모, 대응 방법, 그리고 관련 정책의 이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설문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절대 노출되지 않고 통계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모바일상품권**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수 행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재정금융연구실 김태후 연구위원 (☎ 061-820-2165)	실 사 기 관	(주) 엠브레인리서치 정예빈 연구원 (☎ 02-3429-1746)
----------------------------	--	----------------------------	---

SQ1. 귀하께서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매출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큰 작목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벼(쌀) ② 과수 및 채소류(노지·시설) ③ 축산 ④ 기타()

[prog: SQ1=1응답자만 설문 진행, 이외 종료]

DQ. 개인 인적 사항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남성 ② 여성

D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D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① 경기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 ⑤ 전북
⑥ 전남 ⑦ 경북 ⑧ 경남 ⑨ 특·광역시(서울, 부산 등)

A. 영농 관련 기본 사항

A1. 귀하의 영농경력은 몇 년입니까? [1개 선택]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prog: DQ2응답값-A2보기 최댓값<=18인 경우, 경고창 제시]

A2. 귀하가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재배한 벼(쌀)의 연평균 재배면적을 작성해 주십시오.

NO	재배 품목(작물명)	재배 면적(평)
1	벼(쌀)	평

A3. 지난 2024년 귀하가 재배한 벼(쌀)의 총 판매액(또는 매출액)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1개 선택]

- ① 2천만 원 미만 ② 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③ 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④ 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⑤ 5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⑥ 7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

C4-2. (C1=1,2,3,4응답자만) [C3의 2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C5. (C1=1,2,3,4응답자만)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쌀 생산량 감소 또는 품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재배기술, 품종관리, 교육·컨설팅 참여
- ② 병충해 종합관리(IP)에 참여
- ③ 생산자 단체 구성 및 공동관리
- ④ 신품종·신자재 도입
- ⑤ 자연재해 대응 영농·수리 시설 보완
- ⑥ 품목 다각화
- ⑦ 비상 전력설비 설치
- ⑧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⑨ 화재·손해보험 등 시설 보험 가입
- ⑩ 기타 ()

C6. 농가의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정책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농작물재해보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생산기반 확충사업(경지정리 사업, 간수 배수시설 정비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경영컨설팅 사업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량 묘목 및 신품종, 신기술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농림기술 개발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7. 귀하는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신 횟수는 모두 몇 번입니까? [1개 선택]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없음

D. 농약, 비료 등 생산비 상승 관련 위험

D1.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농자재 가격 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한 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던 해는 5년(2020~2024년) 평균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습니까? [1개 선택]

- ① 10% 미만
② 10~20% 미만
③ 20~30% 미만
④ 30~40% 미만
⑤ 40~50% 미만
⑥ 50~60% 미만
⑦ 60% 이상

D2. 쌀 생산비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순위, 1순위 필수]

1위(____), 2위(____)

- ① 유류 가격 상승
②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
③ 인건비 상승
④ 비닐·시설 자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
⑤ 농기계 보조금 축소
⑥ 위탁작업 비용 상승
⑦ 물류비 상승
⑧ 신기술·신소재 농자재의 도입
⑨ 기타 (_____)

D3-1. [D2의 1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D3-2. [D2의 2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D4.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쌀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생산자 조직을 통한 가격 안정 기금 조성
- ② 영농자재 공동구매
- ③ 영농규모 축소
- ④ 장기 거래처 확보
- ⑤ 다양한 구매처 확보 및 분산 거래
- ⑥ 자가 또는 공동 농자재 생산
- ⑦ 계열화 사업 참여를 통한 무상 자재 공급
- ⑧ 농자재 사용량 절감 노력
- ⑨ 기타 ()

D5. 쌀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순위, 1순위 필수]

1위(), 2위()

- ① 유류·전기료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
- ② 환율 변동 대응 지원
- ③ 생산단체의 공동시설 구축 지원
- ④ 농가 구매용 저리 정책자금 지원
- ⑤ 농자재비 보조
- ⑥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 확대
- ⑦ 보험을 통한 리스크 보상
- ⑧ 기타 ()

E. 벼(쌀) 가격 하락 관련 위험

E1.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쌀가격 하락으로 인해 쌀 판매 단가가 하락한 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5년(2020~2024년) 평균 대비 몇 퍼센트 정도 하락했습니까? [1개 선택]

- ① 10% 미만
- ② 10~20% 미만
- ③ 20~30% 미만
- ④ 30~40% 미만
- ⑤ 40~50% 미만
- ⑥ 50~60% 미만
- ⑦ 60% 이상

E2. 귀하의 쌀 판매 단가가 하락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순위, 1순위 필수]

1위(), 2위()

- ①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
- ② 품질 저하
- ③ 수입산 농산물 증가
- ④ 소비 감소
- ⑤ 유통업체의 부당한 거래 관행(산지 유통인, 대형할인점 등)
- ⑥ 생산과잉 품목 선택 또는 적절치 않은 출하 시기 선택
- ⑦ 기타 ()

E3-1. [E2의 1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E3-2. [E2의 2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E4. 최근 5년간(2020~2024년) 쌀 판매 단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계약재배 체결(가공·유통업체 포함)
- ② 메벼와 찰벼 등 품종 다양화
- ③ 생산자 중심의 공동계산제 이용으로 규모화된 출하 조직 참여
- ④ 직거래 및 소비자 대상 판매
- ⑤ 저온저장 시설을 이용한 출하 시기 조절
- ⑥ 관측정보 적극 활용
- ⑦ 기타 ()

E5. 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려움을 줄이는 데 다음의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개 선택]

정책	매우 도움됨	대체로 도움됨	다소 도움됨	보통	약간 도움 안 됨	대체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1) 시장격리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관측정보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계약재배사업 및 수급 안정화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 농업경영 시 발생하는 어려움 간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

F1. 농업 경영활동을 하시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 각 어려움을 서로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손해로 느껴지십니까? 둘 다 비슷한 정도의 손해라고 느껴지신다면, '둘 다 비슷'이라고 응답해주세요. [1개 선택]

항목	보 기
1)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	① 생산량 감소 ② 생산비용 상승 ③ 둘 다 비슷
2)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① 생산량 감소 ② 농가 판매가격 하락 ③ 둘 다 비슷
3)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① 생산비용 상승 ② 농가 판매가격 하락 ③ 둘 다 비슷

F2. 그렇다면 앞서 비교한 항목 중 더 큰 손해로 느껴지신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손해라고 생각하시는지 7점 만점 기준 점수로 응답해주세요. (예를 들어, '매우 손해'라고 느끼실수록 7점에 가깝게, '조금 손해'라고 느끼실수록 1점에 가깝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1개 선택]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1) 생산량 감소 vs 생산비용 상승에 있어, [F1-1 응답값] 항목이 더 큰 손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생산량 감소 vs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있어, [F1-2 응답값] 항목이 더 큰 손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생산비용 상승 vs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있어, [F1-3 응답값] 항목이 더 큰 손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농업경영위험 실태 및 의견조사표 : 과수·노지·시설작물 농가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가 겪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실제 피해 규모, 대응 방법, 그리고 관련 정책의 이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설문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절대 노출되지 않고 통계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모바일상품권**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수 행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재정금융연구실 김태후 연구위원 (☎ 061-820-2165)	실 사 기 관	(주) 엠브레인리서치 정예빈 연구원 (☎ 02-3429-1746)
----------------------------	--	----------------------------	---

SQ1. 귀하께서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매출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큰 작목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벼(쌀)
- ② 과수 및 채소류(노지·시설)
- ③ 축산
- ④ 기타()

[prog: SQ1=2응답자만 설문 진행, 이외 종료]

DQ. 개인 인적 사항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남성 ② 여성

D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D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① 경기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 ⑤ 전북
⑥ 전남 ⑦ 경북 ⑧ 경남 ⑨ 특·광역시(서울, 부산 등)

A. 영농 관련 기본 사항

A1. 귀하의 주요 재배 작목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과수
② 채소류-노지(배추, 무 등)
③ 채소류-시설(토마토, 오이, 화훼 등)
④ 기타()

A2. 귀하의 영농경력(은 몇 년입니까? [1개 선택]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prog: DQ2응답값-A2보기 최댓값(=18인 경우, 경고창 제시]

A3. 귀하가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재배한 농산물 품목과 품목별 연평균 재배면적을 작성해 주십시오.

NO	재배 품목(작물명)	노지 또는 시설 면적(평)
1		평
2		평
3		평
4		평
5		평

C4-2. (C1=1,2,3,4응답자만) [C3의 2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C5. (C1=1,2,3,4응답자만)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농산물 생산량 감소 또는 품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재배기술, 품종관리, 교육·컨설팅 참여
- ② 병충해 종합관리(IP)에 참여
- ③ 생산자 단체 구성 및 공동관리
- ④ 신품종·신자재 도입
- ⑤ 자연재해 대응 영농·수리 시설 보완
- ⑥ 품목 다각화
- ⑦ 비상 전력설비 설치
- ⑧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⑨ 화재·손해보험 등 시설 보험 가입
- ⑩ 기타 ()

C6. 농가의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정책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농작물재해보험(수입 안정 보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생산기반 확충사업(경지정리 사업, 간수 배수시설 정비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경영컨설팅 사업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량 모목 및 신품종, 신기술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농림기술 개발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3-2. [D2의 2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D4.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생산자 조직을 통한 가격 안정 기금 조성
- ② 영농자재 공동구매
- ③ 영농규모 축소
- ④ 장기 거래처 확보
- ⑤ 다양한 구매처 확보 및 분산 거래
- ⑥ 자가 또는 공동 농자재 생산
- ⑦ 계열화 사업 참여를 통한 무상 자재 공급
- ⑧ 농자재 사용량 절감 노력
- ⑨ 기타 ()

D5.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순위, 1순위 필수]

1위(____), 2위(____)

- ① 유류·전기료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
- ② 환율 변동 대응 지원
- ③ 생산단체의 공동시설 구축 지원
- ④ 농가 구매용 저리 정책자금 지원
- ⑤ 물류비 보조
- ⑥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 확대
- ⑦ 보험을 통한 리스크 보상
- ⑧ 기타 ()

E. 농산물 가격 하락 관련 위험

E1.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산물 판매 단가가 하락한 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해는 5년(2020~2024년) 평균 대비 몇 퍼센트 정도 하락했습니까? [1개 선택]

- ① 10% 미만 ② 10~20% 미만 ③ 20~30% 미만
 ④ 30~40% 미만 ⑤ 40~50% 미만 ⑥ 50~60% 미만 ⑦ 60% 이상

E2. 귀하의 농산물 판매 단가가 하락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순위, 1순위 필수]

1위(____), 2위(____)

- ①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
 ② 품질 저하
 ③ 수입산 농산물 증가
 ④ 소비 감소
 ⑤ 유통업체의 부당한 거래 관행(산지 유통인, 대형할인점 등)
 ⑥ 생산과잉 품목 선택 또는 적절치 않은 출하 시기 선택
 ⑦ 기타 ()

E3-1. [E2의 1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E3-2. [E2의 2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E4.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산물 판매 단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계약재배 체결(가공·유통업체 포함)
- ② 선도거래(발매기) 활용
- ③ 대체 품목 적극적 탐색
- ④ 직거래 및 소비자 대상 판매
- ⑤ 저온저장 시설을 이용한 출하 시기 조절
- ⑥ 관측정보 활용
- ⑦ 자조금 단체 가입 및 홍보활동
- ⑧ 기타 ()

E5.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려움을 줄이는 데 다음의 정책이 얼마나 도움되었습니까? [1개 선택]

정책	매우 도움됨	대체로 도움됨	다소 도움됨	보통	약간 도움 안 됨	대체로 도움안 됨	전혀 도움안 됨
1) 유통협약사업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관측정보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농산물 자조금 조성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계약재배사업 및 수급 안정화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 농업경영 시 발생하는 어려움 간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

F1. 농업 경영활동을 하시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 각 어려움을 서로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손해로 느껴지십니까? 둘 다 비슷한 정도의 손해라고 느껴지신다면, '둘 다 비슷'이라고 응답해주세요. [1개 선택]

항목	보 기
1)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	① 생산량 감소 ② 생산비용 상승 ③ 둘 다 비슷
2)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① 생산량 감소 ② 농가 판매가격 하락 ③ 둘 다 비슷
3)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① 생산비용 상승 ② 농가 판매가격 하락 ③ 둘 다 비슷

농업경영위험 실태 및 의견조사표 : 축산 농가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가 겪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실제 피해 규모, 대응 방법, 그리고 관련 정책의 이용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설문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절대 노출되지 않고 통계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모바일상품권**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수 행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재정금융연구실 김태후 연구위원 (☎ 061-820-2165)	실 사 기 관	(주) 엠브레인리서치 정예빈 연구원 (☎ 02-3429-1746)
----------------------------	--	----------------------------	---

SQ1. 귀하께서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매출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큰 작목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벼(쌀)
- ② 과수 및 채소류(노지·시설)
- ③ 축산
- ④ 기타()

[prog: SQ1=1응답자만 설문 진행, 이외 종료]

DQ. 개인 인적 사항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남성 ② 여성

D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D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① 경기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 ⑤ 전북
⑥ 전남 ⑦ 경북 ⑧ 경남 ⑨ 특·광역시(서울, 부산 등)

A. 축산 관련 기본 사항

A1. 귀하의 주요 사육 축종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한육우
② 젓소
③ 돼지
④ 육용계(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하는 닭)
⑤ 산란계(달걀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닭)
⑥ 오리
⑦ 기타 가축(염소, 양봉, 말 등)

A2. 귀하의 축산경력(은 몇 년이십니까? [1개 선택]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prog: DQ2응답값-A2보기 최댓값(=18인 경우, 경고창 제시]

C3. (C1=1,2,3,4응답자만) 귀하의 축산물 생산량 감소 또는 품질 저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어떤 것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순위, 1순위 필수]

1위(____), 2위(____)

- ① 우수한 정액 보급 부족
- ② 기후조건(폭염, 강수량, 태풍, 이상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
- ③ 신기술(유기, 친환경 축산 등) 적용 시 경험 부족
- ④ 사료성분 변경(단백질 함량 저감 등)
- ⑤ 축사 시설 노후화
- ⑥ 수질 악화 등 주위 환경 악화
- ⑦ 사양관리 기술의 부족
- ⑧ 노동력 부족
- ⑨ 축산 질병(AI, 구제역, 돼지콜레라, 브루셀라 등) 관리실패
- ⑩ 기타 ()

C4-1. (C1=1,2,3,4응답자만) [C3의 1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C4-2. (C1=1,2,3,4응답자만) [C3의 2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C5.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철저한 가축 질병 방제
- ② 밀식사육 억제 등 사양관리 개선
- ③ 신품종, 신기술 지원 사업 참여
- ④ 시설 현대화 투자 확대
- ⑤ 축사 환경관리(온습도 관리 등)
-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
- ⑦ 우수 축종 도입 또는 우수 정액 보급 확대
- ⑧ 사료 변경 또는 첨가제 사용
- ⑧ 기타 ()

C6.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정책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가축 질병 공동방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가축재해보험/가축질병치료보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가축 계열화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축산 컨설팅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가축개량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 사료, 유류 등 축산물 생산비 상승 관련 위험

D1. 최근 5년 동안(2020~2024년) 축산물 생산비(사료비, 인건비 등)가 증가한 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던 해는 5년(2020~2024년) 평균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습니까? [1개 선택]

- ① 10% 미만
- ② 10~20% 미만
- ③ 20~30% 미만
- ④ 30~40% 미만
- ⑤ 40~50% 미만
- ⑥ 50~60% 미만
- ⑦ 60% 이상

D2. 축산물 생산비 증가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순위, 1순위 필수]

1위(_____), 2위(_____)

- ① 유류 가격 상승
- ② 사료 가격 상승
- ③ 인건비 상승
- ④ 축사, 농기계 등 생산기반 비용 증가
- ⑤ 가축분뇨 처리 비용 증가
- ⑥ 수송비 상승
- ⑦ 가축입식비 상승
- ⑧ 기타 (직접 서술: _____)

D3-1. [D2의 1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D3-2. [D2의 2순위 응답값] 원인으로 인해, 귀하의 실제 영농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작음	①
•	②
•	③
보통	④
•	⑤
•	⑥
매우 큼	⑦

D4.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축산물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응답]

- ① 부산물 사료 활용
- ② 농협, 생산자 조직 등을 통한 사료, 유류 공동구매
- ③ 영농규모 감소 및 생산요소 투입 감소시킴
- ④ 다양한 사료 구매처 확보
- ⑤ 비육 기간 단축, 도태 신차 연장, 산란 주령 연장
- ⑥ 사육 규모 축소
- ⑦ 기타 ()

D5. 축산물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순위, 1순위 필수]

1위(), 2위()

- ①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
- ② 축산 컨설팅 사업 강화
- ③ 공동구매 확대를 위한 단지화 사업 촉진
- ④ 공동시설 투자 지원
- 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동물 질병 관리
- ⑥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사료 지원
- ⑦ 보험을 통한 보상
- ⑧ 사료 가격 보조
- ⑨ 기타 ()

E. 축산물 가격 하락 관련 위험

E1. 최근 5년(2020 ~ 2024년) 동안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축산물 판매 단가가 하락한 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해는 5년(2020~2024년) 평균 대비 몇 퍼센트 정도 하락했습니까? [1개 선택]

- ① 10% 미만
- ② 10~20% 미만
- ③ 20~30% 미만
- ④ 30~40% 미만
- ⑤ 40~50% 미만
- ⑥ 50~60% 미만
- ⑦ 60% 이상

- ⑤ 생산자 조직을 통한 공동 브랜드 육성·출하
- ⑥ 규모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
- ⑦ 사육 규모 축소
- ⑧ 자조금 확보를 통한 홍보, 판촉 활동 강화
- ⑨ 기타 ()

E5.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려움을 줄이는 데 다음의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1개 선택]

정책	매우 도움됨	대체로 도움됨	다소 도움됨	보통	약간 도움 안 됨	대체로 도움안 됨	전혀 도움안 됨
1) 산지 축산물 생산, 유통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관측정보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축산물 자조금 조성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농축산물 판매 촉진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소비자 유통 활성화 사업 (농산물 직거래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 농업경영 시 발생하는 어려움 간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

F1. 농업 경영활동하시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 각 어려움을 서로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손해로 느껴지십니까? 둘 다 비슷한 정도의 손해라고 느껴지신다면, ‘둘 다 비슷’이라고 응답해주세요. [1개 선택]

항목	보 기
1)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	① 생산량 감소 ② 생산비용 상승 ③ 둘 다 비슷
2)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① 생산량 감소 ② 농가 판매가격 하락 ③ 둘 다 비슷
3)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해와 농가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① 생산비용 상승 ② 농가 판매가격 하락 ③ 둘 다 비슷

KREI

www.krei.re.kr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부속 연구서**
- 농업인 경영위험관리 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